

현대차, 印 GM공장 인수... "전동화 전환 적극 대응" 10

정부, 민관합동 수출금융 23兆 지원 14

중국發 '부동산 쇼크' 세계경제 '태풍 경보'

디플레이어 비구이위안 파산 위기
민간 부채, 경제 전반 전이 우려

3개월 만에 코스피 2530선 붕괴
뉴욕증시도 1% 넘게 하락 마감

美 소매판매發 긴축 장기화 고개

중국의 경기 둔화 지표와 부동산개발
기업인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이 파
산 위기에 몰렸다는 소식에 국내외 금융
시장이 요동쳤다. ▶관련기사 4·8면

코스피는 2530선이 붕괴됐다. 16일 코스
피는 전 거래일보다 1.76% 하락한 252
5.64에 마감했다. 2530선이 무너진 것은 5
월 18일(2515.40) 이후 3개월 만이다. 삼
성전자(-0.45%), LG에너지솔루션(-
2.95%), 포스코홀딩스(-5.37%), LG화학
(-2.18%) 등 중국 경제의 영향을 받는 대
표 수출기업들도 일제히 하락했다. 코스닥
은 외국인 매도 폭탄에 2.59% 하락한
878.29로 마감, 900선에서 더 떨어졌다.

위안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외환시장도
출렁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6원 급등해 1336.9
원에 거래를 마쳤다. 예상보다 강하게 나온
미국의 소비 지표로 미 고금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맞물리면서 원·달러 환율
은 장중 한때 1341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주요국 증시도 추락했다. 15일(현지시
간) 미국 증시는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
수(-1.02%), 스탠더드앤드푸어스(S&
P) 500지수(-1.16%), 나스닥지수(-
1.14%) 등 3대 지수 모두 1%대 하락으로
장을 마쳤다. 유럽 증시에서는 범유럽 지

수인 유로 Stoxx 50지수가 0.96% 떨어
진 것을 비롯해 1% 안팎으로 하락했다.
일본 닛케이지수는 1.46% 하락했다.

시장을 흔든 것은 G2(미국·중국) 리스
크다. 이들 시장에서 발생한 위험은 금융
과 실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 중국 경제지표가 악화하는 가운데
형다, 원화에 이어 비구이위안의 채무불
이행(디폴트) 우려가 불거졌다. 비구이
위안은 7일 달러 채권에 대한 이자 2250
만 달러(약 300억 원)를 내지 못했다.

시장 참여자들이 비구이위안 사태를 두
려워하는 이유는 '기업 부채'를 자각할 수
있어서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 부채는 158%로 주요 7개국(G7) 평
균(98%)보다 높고, 프랑스(164%) 다음
으로 많다. 민간 부채 문제를 감당할 정부
재정 여력도 많지 않다. 중국 정부의 부채
는 최근 4년간 GDP 대비 21.2%포인트 증
가하면서 77.7%까지 늘어났다. 정부 부채
로 잡히지 않는 지방 정부 부동산 투자기
구(LGFV) 부채까지 더한다면, 농성이처럼
불어난다. 국제금융센터 최근 보고서에 따
르면 중국 LGFV의 부채 총액은 지난해 기
준 60조 위안(1경 973조 원)에 달한다.

부동산발 부채위험은 소비와 투자 감소
등 경제 전반의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

미국발 긴축 우려도 다시 고개를 들었
다. 미국의 7월 소매판매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온 탓이다. 미국의 7월 소매판매
실적은 전월 대비 0.7% 상승해 시장 전망
(+0.4%)을 뛰어넘었다. 매패로 분류되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
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여전히 너무
높다"면서 금리 인상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권태성 기자 tskwon@
송영록 기자 syr@



중리스크에... 증시·환율 '출렁' 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모니터에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 마감가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45.23포인트(1.76%) 내린 2525.64로, 코스닥지수는 23.39포인트(2.59%) 내린 878.29로 장을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6.0원 오른 1336.9원에 거래를 마쳤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한미일 정상회의서 기술·국방 관련 공동구상 발족"

로이터, 美 고위관계자 인용 보도
3국 핫라인 구축·연례모임 등 추진
尹 "북핵 확장억제 별도 협의 여지"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안보 관련 3국의
협력이 한 차원 더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3국 정상회의의 기
간 기술, 국방과 관련한 공동 이니셔티브
(구상)를 발족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
이 미국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15일(현
지시간) 보도했다. ▶관련기사 6면

관계자들에 따르면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는 한미일
정상 이니셔티브에 지역적 책임에 대한
상호 이해를 공유하고 위기 상황 시 소통
하기 위해 3국간 핫라인을 구축하는 방안

도 포함한다.

한 관계자는 "안보 영역에서 3국을 더
가깝게 하려는 몇 가지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의 집단 안보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상호 간 방어를 약속하는 공식적
인안보 협정을 체결하진 않을 것으로 예
측된다. 관계자는 "3자 안보 프레임워크
를 온전히 기대하기엔 너무 무리가 있다"
며 "그러나 우리 새로운 (정책) 조정과 탄
도 미사일 방어 기술을 진전시키고 있다"
고 강조했다.

로이터는 "미국은 한국, 일본과 별도로
집단방위 협정을 맺고 있지만, 중국의 세
력 강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한일 양
국이 더 긴밀하게 협력하기를 원하고 있
다"며 "미국 관리들은 유대와 협력을 공식

화하는 3국 간 연례 모임을 바라고 있고
이번 회담이 그 첫 번째가 될 것"이라고 설
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블룸버그통신과
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핵 핵 확장억제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 일본이 별도로 협의
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새로운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 출범 등의 논의
가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재 한미, 미일 등 양국간 확장억제 대
화는 이뤄지고 있지만, 3개국간 논의는 아
직 없다. 한국과 미국은 핵협의그룹(NCG
)을 출범해 구체적인 확장억제를 논의 중
이고, 미국과 일본은 2010년부터 확장억
제를 위한 정기적인 양자 대화를 구축·가
동해오고 있다. 변호선 기자 hsbun@
고대영 기자 kodae0@

한국 IT 산업의 대표기업 카카오가
부실 계열사를 잇따라 정리하며 조직쇄
신에 나섰다. 수익 악화의 주범인 비주
력 계열사를 정리하면서 경영 효율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경영진의 의지가 드러
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일각에서
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시세조종 의
혹'을 받고 있어 올 국정감사 전에 계열
사 정리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
도 나온다. ▶관련기사 3면

16일 본지 취재 결과, 카카오는 올해
상반기 카카오IX 재팬(카카오IX 일본법
인), 인도 웹툰 플랫폼 크로스코믹스, 카
카오NFT(대체불가능토큰)마켓플레이
스 클레이베이, 카카오게임즈 자회사 라
이프엠엠, 룩앤울 등을 청산했다.

지난해 주요 계열사 중 7곳이 적자를
기록하자, 올해부터 선택과 집중을 통
해 수익성 위주의 사업구조 재편에 속도

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 투자총괄 대표는 1분기 실적발
표 콘퍼런스 콜에서 "카카오와 카카오
공동체 전체적으로 비용을 보다 효율적
으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일부
경쟁력이 낮다고 생각되는 사업들은 정
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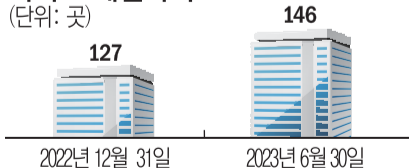
카카오가 상반기 사업을 정리한 카카
오IX 재팬은 올해 상반기 당기순손실
12억 원을 기록했다. 이 외에도 올해 상
반기 기준 카카오 주요 계열사 당기순손
실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4381억 원
△카카오엔터프라이즈 1612억 원 △카
카오모빌리티 688억 원 △카카오스타일
501억 원으로 집계됐다. 카카오 관계자
는 "일본 시장 태풍을 위해 설립한 법인

실속 없는 '문어발' 잘라내는 카카오

카카오 상반기 청산법인 리스트

카카오IX 재팬, 룩앤울, 크로스코믹스
라이프엠엠, 클레이베이

카카오 계열사 수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수익 악화 비주력 계열사 정리나서 조직쇄신 통해 경영 효율화 포석

일각선 창업자 시세조종 의혹에 올 국정감사 전 정리작업 시선도

이며 현지 파트너사와 협업해 IP 사업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변경했다"며
"이에 법인을 청산했고 IP 콘텐츠 기반
으로 현지 라이선스 파트너사와 함께 영
향력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계열사가운데 적자 규모가
가장 큰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등을 시작으로 구조조정
을 본격화하고 있다. 우선 수익성이 낮
은 비주력 계열사 숫자를 줄이는데 집중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
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 조종 의
혹을 수사 중인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의 주시하고 있다. 김 창업주는 지난해
국감장에서 "문어발 확장, 필요치 않은
부분에 대한 투자 등을 전면 재검토하겠

다"고 약속했지만, 올해 상반기 SM엔
터테이먼트 인수로 카카오의 계열사 수
는 되레 늘어났다. 지난해 12월 31일 기
준 상장사 5곳, 비상장사 122곳 등 총
127곳이었던 카카오 계열사는 상반기
(6월 30일 기준) 상장사 10곳, 비상장
사 136곳 등 총 146곳으로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골
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계열사 수를 줄이
기로 약속한 카카오의 계열사가 대폭 증
가한 데다 최근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의혹에 김창업주가 연루되면서 하
반기 국정감사에서 카카오가 논란의 중
심에 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정부위 관계자는 "올해 국정감
사 핵심 의제로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등 주식시장 불공정거래행위
를 정조준하면서 카카오에 대한 정치권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
했다. 김나리 기자 nari34@

“중국인만 한 큰손 없어”... 들뜬 명동 상권, 붐비는 면세점

유커 특수에 분주한 상권

“손님 끊겨 고사 직전이었는데 유커 몰려오면 숨통 트일 것” 중국어 가능한 직원 대거 뽑고 알리페이 재개... 통역사 배치

“그동안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 좀 먹고 살 만해질까요? 유커(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이 하루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1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만난 상인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20여년간 명동에서 장사를 해왔다는 노점상인 고운광(50) 씨는 “다른 나라 관광객이 아무리 와도 중국인만 한 손님들이 없다”며 “그동안 중국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과 코로나19로 관광객들이 안 와서 거의 죽을 지경이었는데 중국인 단체관광이 재개된다니 너무 반가운 소식”이라고 기뻐했다. 고씨처럼 이날 기자가 만



16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면세점에서 중국인 고객들이 화장품을 구매하고 있다.

난 명동 일대 상인들 모두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한국 단체관광을 허용하면서 외국인 쇼핑 1번가로 꼽히는 명동 상권이 다시금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그동안 명동 상권은 코로나19 엔데믹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 등의 영향으로 중국인이 방문이 뜸했다. 하지만 2017년 3월 사드 보복 이후 6

년 5개월 만의 단체관광 허용으로, 최대 수혜는 명동 상권이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사드 보복 이전까지 ‘유커 특수’를 누리던 화장품 상점들은 모처럼 중국인 손님을 맞을 채비에 바빴다. 명동 한 화장품 가게 사장 권모(50) 씨는 “이제 규제도 풀렸으니 유커들이 돌아오는 것은 시간문제 아니겠느냐”며 “아직은 일본인, 싱가포르 관광객이 더 많지만 중국인

단체관광 재개 소식을 듣고 중국어가 가능한 직원을 5명이나 뽑았다”고 말했다.

맞은편 화장품 가게에서 10년 넘게 근무 중인 30대 방모 씨도 기대감을 보였다. 방 씨는 “사드 보복으로 중국 단체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기 전만 해도 우리 매장은 중국인 천지였다. 지금은 매출이 반토막 났지만, 유커가 돌아오면 명동 화장품 가게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유커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명동 상권이 하루빨리 살아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명동 상인들이 중국 관광객을 중요시하는 건 1인당 소비 금액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국인이 우리나라 방문 시 소비하는 1인 당 지출액은 2019년 기준 1689달러로 미국인 1106달러, 일본인 675달러보다 많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동 인근 면세점도 중국인 단체관광 재개로 매출 증대 기대감이 높다. 이날 오후 찾은 롯데면세점 소공본점과 신세계면세점 명동본점은 중국인들로 크게 붐볐다. 매장마

다 빠르게 물건을 결제하는 사람부터 양손에 쇼핑백을 들고 가는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면세점 관계자는 “중국인 보파리상으로 불리는 ‘파이공’과 일부 개인 관광객들이 뒤섞여 있다. 비자 문제로 아직 단체관광객이 오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화장품 매장에서만 오래 일했다는 윤모 씨는 “사드 사태 전만 해도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가득했었다. 그때보다 매출이 크게 줄었지만 ‘K화장품’ 인기가 여전히 매출로 되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롯데와 신세계는 물론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등은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대비한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통역사를 배치하고 전용 데스크도 설치했다.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간편결제 ‘알리페이’ 제휴도 재개됐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중국 단체관광객 허용을 환영한다”며 “다만 유커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오려면 2~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어 다양한 프로모션 등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 문현호 기자 m2h@

빛장 풀린 유커, 파이공 대신할까... 면세점업계 “공항 판매 강화”

유커 송객수수료 비중 높일 경우 과거 ‘출혈 경쟁’ 답습할 우려도

중국정부가 자국민의 한국 단체관광을 허용함에 따라 국내 면세점업계가 본격적인 유커(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전에 나섰다. 그동안 관행처럼 유커를 데려온 여행사에 지급했던 송객수수료는 변수다. 유커 유치에만 치중해 송객수수료 비중을 높일 경우, 과거의 ‘출혈 경쟁’을 답습할 수 있어서다. 반면 파이공(보파리상)과 유커는 구매 특성이 달라 지급수

료가 비정상적으로 늘지 않을 것이라 관측도 있다. 면세점업계는 파이공 의존도를 낮추고 순수한 유커 대상 수익을 늘리기 위해 공항면세점 매출 확대에 힘을 쏟는다. 전략이다.

16일 면세점업계는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조치 일환으로 금지됐던 한국행 단체관광이 6년 5개월여 만에 허용되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유커 입국금지 후 면세점업계는 매출액에 변화가 없었지만, 영업이익이 매년 감소하며 어려움을 겪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던 유커의 부재로 많은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

게 되자, 한국 면세점에서 상품 대량 구매 후 중국에서 되파는 파이공 유치를 위해 업계는 일제히 송객수수료 비중을 늘렸기 때문이다.

A면세점 관계자는 “유커를 데려오는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10%대지만, 파이공은 40%까지 주는 게 사실”이라며 “사드 사태 이후 파이공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하락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유커 허용으로 파이공 의존도는 떨어질 전망이다. B면세점 관계자는 “유커 없이 매출을 내리니 파이공 유치 경쟁이 과열됐다”며 “유커는 여행사가 지정한 면세점

을 이용하고, 꾸준히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수료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올 하반기 면세점 수익이 개선될지는 미지수다. 유커 귀환 효과가 가시화하는 데까지 3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 업계의 중론이다. 파이공과 유커는 면세점 방문 성격 자체가 달라 영업이익 개선에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라 관측도 있다. 파이공은 단가가 높은 인기상품을 대량 구매해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지만, 유커는 저렴한 소량의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C면세점 관계자는 “파이

공과 유커는 매출 구조나 구매 특성이 달라 단체관광이 재개된다고 매출이 극적으로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파이공으로 발생했던 매출액을 유커로 메우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 방침에 따라 작년부터 지속된 업계의 파이공 수수료 인하 기조도 이어질 전망이다.

면세점업계의 대안은 공항면세점 매출 비중 확대다. 올해 7월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면세사업을 시작한 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면세점은 공항면세점 확대로 파이공 의존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시내면세점도 파이공 대신 일반 여행객 대상 프로모션으로 매출을 늘릴 계획이다.

구제이 기자 sunrise@

전 국민 하루 1kWh 줄이기 실천요령

세가지만 실천해도 하루 1kWh 줄이기 성공!

- ▶ 하나! 에어컨 설정온도 1°C 높이고,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 26°C 유지하기 **0.41kWh**
- ▶ 둘!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0.36kWh**
- ▶ 셋!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0.32kWh**

하루 1.09kWh 절감

하루 1kWh, 한달 30kWh 절감 → 한달 전력사용량 10%, 전기요금 13% 절감

전력 사용량	299 kWh	↓ 30kWh 절감	269 kWh
전기요금	58,010 원	↓ 7,790원 절감	50,220 원

주1) 기구당 월평균 전력사용량(299kWh/월) 기준(출처: 2020년 에너지조사) 주2) 전기요금은 한전 사이버점 전기요금계산기(주력용 저압, 기타계절, 전력요금 및 부가세포함)를 통해 산출

일곱가지 더 실천하면 나도 에너지 절약 달인!

전자레인지 자연해동 후 사용	0.19kWh/일
비데 온열기능 끄기	0.1kWh/일
세탁기 세탁물은 모아서	0.09kWh/일
전기밥솥 보온시간 ↓	0.06kWh/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하기	하루 1.08kWh, 한달 32.4kWh
시원한 차림으로 쿨맵시 실천하기	하루 0.81kWh, 한달 24.3kWh
LED 등 고효율 조명 사용하기	하루 0.54kWh, 한달 16.2kW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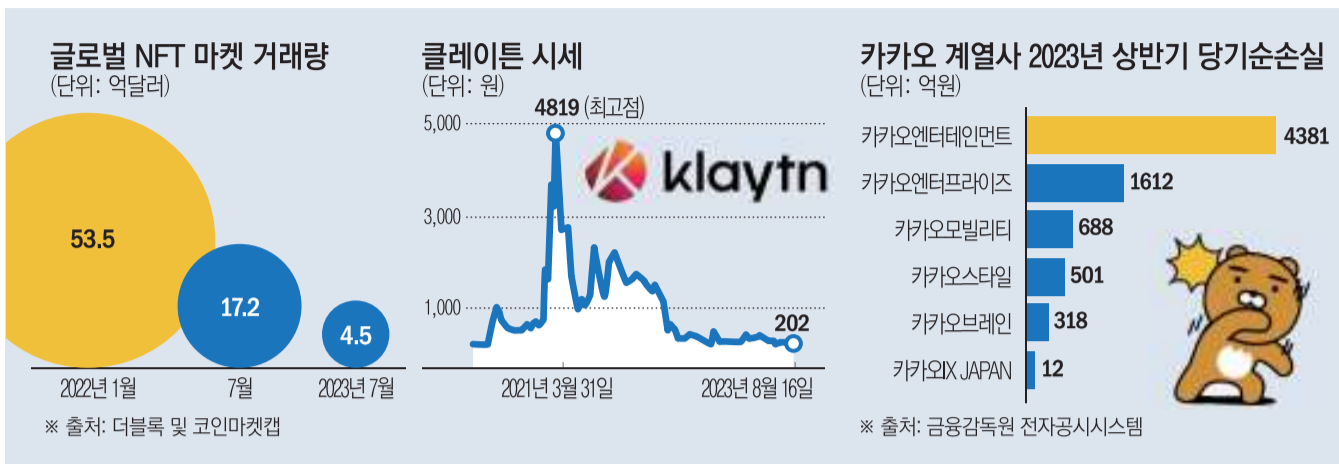
산림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KEN 한국에너지
KOMIPO 한국중부발전
KWP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KEIA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세마을운동중앙회
에너지시미티어 Korea NCC Energy Network L.L
KCEV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한국소비자연맹협회

1분기 거래 0건...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카카오 NFT마켓

클레이베이 1년 만에 공중분해

클레이튼 4800원→200원 침체
관련 게임 NFT 거래 사실상 없어
운영사, 한은 디지털화폐만 집중
클레이튼재단에 독립 사업 이관
재단 측 “모른다” 오리알로 전락



카카오 산하 NFT(대체불가능토큰) 거래 플랫폼 '클레이베이'가 문을 연 지 1년 만에 사업을 접었다.

16일 카카오가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카카오는 클레이베이가 싱가포르 법인(KLAYBAYPTE.LTD)을 올해 상반기 중에 청산했다. 현재 클레이베이 플랫폼 홈페이지는 접속이 안 되며, 클레이베이 텔레그램 방은 구독자가 한 명도 없는 상태이다.

클레이베이는 클레이튼의 운영사였던 크러스트유니버스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카카오 계열 자회사다. 지난해 5월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했다. 클레이튼 기반의 게임 특화 NFT 마켓플레이스를 표방하며, 지난해 11월 게임 NFT 2차 거

래 마켓플레이스를 론칭했다. 슈퍼워크와 스니커즈 등 블록체인 게임 20여 개를 입점시키는 등 활발한 사업을 펼쳤다. 당시 클레이베이 측은 '글로벌 넘버원 게임 NFT 마켓플레이스'라는 야심 찬 포부를 강조하며 "클레이튼 메인넷뿐만 아니라 향후 클레이튼의 서비스체인까지 아우르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크립토 윈터 여파로 NFT 시장은 가라앉았고, 클레이베이 사업은 순탄치 않았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클레이베이 플랫폼 안에서 체결된 NFT 거래는 거의 전무했다. 올해 1~3월 NFT 거래량은 아예 없었다.

클레이튼 가격이 끝없이 추락하면서 클

레이튼 기반 NFT 역시 투자자들의 구미를 당기지 못했다. 그간 불투명한 회사 운영 방식 등으로 인해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다. 2021년 4월 한때 최고가 4800원을 기록했던 클레이튼은 지난해 9월부터 200원대 가격을 횡보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코인마켓캡 기준 클레이튼 가격은 201.97원이다.

크러스트유니버스가 올해 3월 클레이튼 사업에 손을 떼며 클레이튼 산하 CIC

(사내독립기업) 사업이 동력을 잃은 것도 클레이베이 사업 중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크러스트유니버스는 한국은행의 CBDC 사업을 포함한 블록체인 기술 프로젝트 활성화에 집중한다면 클레이튼 사업 대부분을 비영리 법인인 클레이튼 재단에 넘겼다. 클레이튼 측은 과거 크러스트가 인큐베이팅했던 산하 CIC는 현재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상민 클레이튼 이사장은 10일 디스코드에서 투자자들과 가진 AMA 간담회에서 "클레이튼 산하 CIC는 독립 법인"이라며 CIC 현황을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다. 클레이튼 관계자는 "클레이베이 사업은 과거 크러스트 쪽에서 진행한 것으로, 저희가 독립하면서 클레이베이 관련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아 잘 모른다"고 말했다. 카카오의 클레이베이뿐 아니라 최근 오픈씨, 블러 등 글로벌 NFT 거래소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블록에 따르면 지난해 1월 48억1000만 달러로 정점을 찍었던 오픈씨 거래량은 지난달 1억3200만 달러로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10월 오픈씨의 대항마로 꼽혔던 블러는 2월 거래량이 11억 달러로 정점을 찍었지만, 지난달 2억5133만 달러로 77% 감소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클레이튼 생태계 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클레이튼 시세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 운영이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4년 만에 카카오 계열사 2배로 구조조정·내부갈등 후유증 심화

경영진 '무리한 상장' 이득 취하고
책임은 직원만 지는 상황에 '대립'

4년 만에 계열사를 2배 이상 불린 카카오가 계열사 정리에 나섰다. 4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하락하는 등 실적 악화하면서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카카오엔터테인먼트 구조조정에 이어 계열사 청산까지 나서는 등 문어발 확장의 후유증이 거세지고 있다. 기업 청산은 인력 구조조정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어 내부 갈등이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카카오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기준 카카오의 국내 계열사는 총 146곳이다. 2018년 65곳에서 2021년 138개까지 늘어났고, 지난해 말 127곳에서 올 상반기 146개로 증가했다. 4년 반 만에 계열사 수는 두 배 넘게 불어났다.

계열사 확대와 달리 카카오의 실적은 악화했다. 카카오의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113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7% 줄어들며 4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순이익은 563억 원으로 44.4%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2.1% 늘어난 2조425억 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SM엔터테인먼트의 연결 편입 효과가 반영된 사실상 착시효과다.

실적이 악화하자 카카오는 계열사 정리에 나섰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카카오IX의 미국법인을, 올 상반기에는 카카오IX 재팬, 카카오 산하 NFT 마켓 플레이스 클레이베이, 내비게이션 앱 김기사 운영 업체 특앤을 등을 청산했다.

경영진은 크루들의 고용 안전은 뒷전인

채, 본인 몫 확보에 나서 비판을 받고 있다. 남궁전 대표는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에 책임을 진다며 각자 대표직을 사임했다. 그러나 미래이니셔티브센터 상근 고문으로 활동하며 올 상반기 스톡옵션을 행사해 총 94억3200만 원의 행사차익을 챙겼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대표였던 백상엽 고문은 5월, 경영 악화를 책임지고 사임했다. 이후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구조조정에 들어갔으나, 백상엽 전 대표는 다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비상임 고문으로 선임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노조는 "실패를 떠넘기지 말고 고용 안전을 책임져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17일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근처에서 2차 공동행동 '크루들의 행진'을 한다. 지난달 26일 책임 경영을 촉구하며 처음으로 단체행동을 벌였다가, 사측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노조는 단체행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특히 카카오의 무책임한 문어발 확장과 계열사 구조조정에 내부 갈등은 심화하고 있다. 박성의 카카오노조 홍보부장은 "경영진이 무리하게 상장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만으로 해외법인 등을 샀다가 없애고, 또 사업을 벌이는 상황"이라며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면 구조조정을 할 수도 있지만, 구조조정을 이루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퇴사했던 분이 고문으로 돌아와 스톡옵션으로 100억 원을 가져가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반복되지 않느냐"며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다 같이 져야 하는데, 경영진은 의사결정만 하고 책임은 크루들만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유진 기자 newjean@

국민건강보험이 지원하는 금연치료, 지금!

금연치료, 지금 시작하세요!
국민건강보험이 지원하는 금연치료, 지금!

- ☑ 혼자하는 금연보다 **금연성공률 6배 UP!**
- ☑ 금연치료 완료하면 **진료비도 전액 환급!**

📞 금연치료지원 상담전화 **1577-1000**

공단App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까운 병·의원 찾기

금연치료 전문가인
의사선생님께 진료

금연치료를 위한
전문의약품 니코틴 보조제 처방

이수조건 충족시
본인 부담금 전액 환급

〈은행 리스크〉 〈부동산 리스크〉

‘샌드위치’ 된 韓증시… 美·中 ‘더블 리스크’에 손터는 外人

요동치는 금융시장

국내 증시가 ‘샌드위치 위기’에 갇혔다. 중국발 부동산 리스크와 미국 고금리 및 은행 위함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코스피지수는 보름새 100포인트 이상 빠졌다. 한국 경제와 가장 밀접한 두 나라의 경제 리스크는 국내 외국인 수급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악재 부상은 외국인 자금 이탈 등으로 이어져 충격이 클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중국의 부동산 부실이 실물경제로 전이된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온 리먼 브라더스 파산의 악몽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16일 외국인인 유가증권·코스피·선물·주식선물 시장에서 9538억 원어치를 팔아 치웠다. 특히 선물시장에서는 이날 7646억 원을 포함해 단 이틀 동안 1조 원가량의 물량을 던졌다.

중국 악재가 시장 참여자, 특히 외국인의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의 수요가 부진해지면 전 세계 수요가 회복되지 않아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신중호 이베스트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중국의 소비와 경기가 둔화하면서 수출이 줄어들고 외국인도 투자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스피가 현 수준 이상으로 가려면 수출이 플러스(+)가 돼야 하는데 중국 지표가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중국 모멘텀이 살아나지 않고 있어 코스피는

글로벌 주요 리스크	순위	리스크 요인	발생가능성	영향력	전월대비
※ 매우 높음 ★★★ 높음 ** 낮음 *	1	고인플레이션 재연	★★★★	★★★★	↑
	2	통화긴축 강화	★★★★	★★★★	↓
	3	신용위험	★★★★	★★	-
※ 국제금융센터 자체 평가 (글로벌 거시경제 및 금융 시장 지표 동향, 설문조사, 검색 빈도 등 반영)	4	경기침체	★★	★★★★	-
	5	자산가격 조정	★★	★★	-
	6	중국 내수위축	★★	★	신규
※ 출처: 국제금융센터	7	미국 신용등급 강등 파장	★	★★	신규

코스피 보름새 100p 이상 빠져 외국인, 주식 등 1조 가까이 팔아 선물시장 매도 이틀간 1조 규모 ‘8월 조정설’ 현실화 가능성 제기

2600이나 2700, 하방은 2500대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비구이위안 사태’가 조기에 해결되지 않으면 위험회피 심리가 강해지며 ‘8월 조정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중국 경기가 전 세계 수요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수요 회복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부동산 이슈를 바탕으로 하는 경기 둔화 우려가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이차전지나 초전도체 같은 미래주도 수명을 다해 국내 증시가 박스권 내에서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경기 리스크는 고스란히 국내 수출로 전염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

달 1~10일 기준 대중국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25.9% 하락하며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대중국 수출에 큰 영향을 주는 반도체 수출 역시 감소 폭은 줄었지만, 전년 동기 마이너스(-) 18.1%의 부진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정성태·김중호 삼성증권 연구원은 “중국 경제가 7월 들어 부진이 심화됐으며, 단기간 내 반등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한다”고 진단했다.

미국 고금리와 은행 리스크도 계속 경 고음이 울리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8월 글로벌 리스크 주요 리스크에 ‘중국 내수 위축’과 ‘미국 신용등급 강등 파장’을 새로운 리스크 항목으로 편입했다. 앞서 글로벌 주요 리스크로는 △고(高)인플레이션 재연 △통화긴축 강화 △신용위험 △경기침체 △자산가격 조정 등이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기업·은행의 등급이 하향될 경우 자금경색과 신용위험 부각 소지가 있다”면서 “중국의 내수 둔화는 수입 수요를 약화시켜 밸류체인에 있는 아시아권 대부분과 유럽 주요국 등지에서 수출 및 제조업 생산 등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멈추지 않는 엔저 엔화 약세가 멈추지 않고 심화하는 가운데 16일 서울 중구 명동의 환전소에 설치된 모니터에 각국 통화 대비 원화 환율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1달러=1336.9원〉 원·달러 환율 한달새 76원↑ 석달만에 장중 1340원 돌파

위험회피 심리 확대로 무서운 상승 중경기 침체엔 원화약세 가속화

1200원대에 안착하는가 했던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중반을 향해 치솟고 있다. 미국 내 신용강등 이슈와 중국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위험회피 심리가 확대된 영향이다. 당분간 환율이 1300원대 아래로 내려오긴 어려울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1260.4원을 기록했던 원·달러 환율은 이날 1336.9원에 마감하며 약한달 새 76.5원 급등했다. 특히 환율은 전장 대비 9.1원 오른 1340원으로 개장하며, 연고점을 찍었던 5월 17일(1343원) 이후 석달 만에 처음으로 장중 1340원대를 돌파했다.

최근 환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이달 들어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급등세를 타기 시작했다.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달러화에 자금이 몰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어 최근 중국발 리스크가 환율 상승세에 불을 붙이는 형국이다. 원화는 중국보다 자본 유출입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위안화의 프록시(Proxy·대리) 통화’로 불린다.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 역시 동반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오창섭현대저축증권 연구원은 “향후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중반까지 상승할 경우 주식시장 불안과 함께 통화 정책 측면 금리 인상 필요성 등

이 제기되면서 한국 경제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2년반만에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에 진입한 중국이 이대로 경기 침체의 늪에 빠지면,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 약세는 더 가속화될 수 있다. 한국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7월까지 9개월 연속 감소세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금융시장은 하반기 한국 수출 회복을 기대하고 있지만, 제조업 수출 전망은 약화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중국 제조업 위축 때문에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유의미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연내 1200원대 환율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1350원대까지 치솟을 가능성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 연구원은 “1350원 2차 저항선 지지 여부가 고민이기는 하나 아직 수출업체 달러 공급이 양호하고, 한은 물가 안정 목표에 있어 환율의 역할이 작지 않기 때문에 당국 미세조정에 대한 경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현 상황에서 1350원 상향 이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환율 흐름이 ‘원화만의 약세’라기보다는 ‘글로벌 달러 강세’에 의한 것인 만큼 현 레벨에서 원화 약세 폭은 제한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송영록 기자 syr@

“우리도 위험하다”… 부동산PF 부실 ‘시한폭탄’

중 ‘부동산 디폴트 위기’ 확산 우려 2금융권 대출잔액·연체율 급증 심각

중국 매출 1위 부동산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컨트리거든)이 촉발한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가 다른 부동산 업체는 물론, 전 세계 금융권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국내 금융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크진 않겠지만, 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우려가 가시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16일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구이위안이 한국 내 투자나 거래 관계가 많아서 국내 업체들이 못 받을 돈이 많거나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한국의 우수 기업이나 한국경제에 영향을 끼칠 만큼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무시할 상황은 아니다. 국내 역시 부동산 PF 리스크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PF 부실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으로 남아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31조6000억 원 규모다. 지난해 12월 말(130조3000억 원) 보다 석달 새 1조3000억 원 늘었다. 같은 기간 부동산PF 대출 연체율도 1.19%에서 2.01%로 0.82%포인트(p) 올랐다. 특히 저축은행의 부동산PF 연체율은 4.17%, 여신전문금융사의 연체율은 4.20%로 작년 12월 말보다 각각 2.02%p, 2.00%p씩 올랐다.

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 잔액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연체율도 2%를 넘어섰다는 것은 사업장 곳곳에서 부실 문제가 연

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판단도 이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이날 ‘부동산 시장 하반기 전망 및 PF대출 건전성에 미치는 함의’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일부 회복됐다고 하지만, 이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에 해당할 뿐, 그 외 시장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증권, 저축은행, 캐피탈의 부동산PF 브릿지론을 주목했다. 브릿지론은 사업인허가 및 본PF 대출 이전에 실행하는 대출을 말한다. 본PF 승인 전까지 필요한 초단기 자금인 만큼 본PF로 넘어가지 못하면 시행사는 물론, 브릿지론을 빌려준 금융사도 부실을 떠안아 리스크가 높다.

이재영 기자 lry0403@

인민은행 정책금리 인하 부양책에 실망 글로벌IB ‘GDP 성장률 전망’ 줄하향

일련의 경제지표가 시장의 기대를 밑돌면서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정부 목표인 ‘5% 안팎’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투자은행(IB) JP모건체이스는 올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8%로 하향 조정했다. JP모건은 올해 4월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 발표 이후

성장률 전망치를 6.4%로 제시하며 주요 IB 중 가장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6월 5.5%, 7월 5.0%로 전망치를 계속 내린 끝에 이번에 중국 정부 목표에 못 미치는 전망치를 내놓았다.

영국 바클레이스는 올해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4.5%로 제시해 종전보다 0.4%포인트(p) 내렸다. 일본 미쓰호파이낸셜그룹도 전망치를 종전 5.5%에서

5.0%로 내렸다.

바클레이스는 전망치 하향 이유로 소비, 주택, 수출, 신용에 대한 실망스러운 데이터와 효과적인 경기부양책 부재를 꼽았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중국의 7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5%, 산업생산은 3.7% 각각 증가하는 데 그쳤다. 모두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증가 폭이다.

을 ‘5% 성장’도 위태위태… 시진핑 진퇴양난



부동산 위기도 중국 경제 성장 발목을 잡는 요소로 지목됐다. JP모건은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 비구이위안(영문명 컨트리거든)이 촉발한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가 시장 신뢰를 더욱 악화시키고, 금융업에도 리스크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더 암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JP모건은 내년 중

국 경제성장률이 4.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고, 바클레이스는 4%를 기록할 것이라 전망을 유지했다. 전망대로라면 중국은 마오쩌둥 시대 이후 처음으로 3년 연속 5% 미만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블룸버그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정책금리 인하로 경기부양 의지를 시장에 보낸 뒤에 글로벌 IB들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하향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시진핑(시진) 정권이 더 공격적인 부양책을 펼칠 것이라는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AI 도입하고, 직원 늘리고... 범죄 냄새나면 즉각 거래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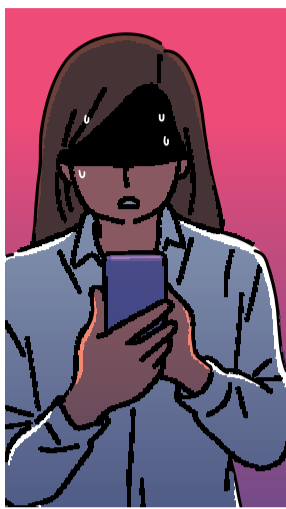
② 피싱피해 방지 나선 금융권

‘대면 편취형’ 수법에 예방 중요
인공지능 기술로 이상징후 탐지
모니터링 부서 등 전담인력 충원

경찰청·교육청과 협업해 효율 ↑
생활비·보험 등 피해자 지원도


보이스피싱의 주된 타깃은 노약자나 중·저신용자, 금융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층이 대다수다. 이들은 ‘그놈 목소리’에 순간 당황해 은행 현금출금기(ATM)기로 달려가거나 은행 창구를 이용한다. 은행권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교육을 강화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은행권이 내놓는 예방책도 다양해졌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전담 인력을 충원하는 등 사전 예방에 총력을 펼치는 상황이다. 피해자 구제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에 피해 고객의 회복을 돕는 ‘안심보상제’ 등 사후 시스템까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시중은행 최초로 실시간 영상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보이스피싱 모니터



은행권 보이스피싱 예방 시스템

KB국민은행	경찰청과 대국민 홍보 실시, '시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
신한은행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영상확인 시스템' 도입,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및 예방사업' 동참
하나은행	보이스피싱 앱 탐지 기능 탑재, 디지털 문해 교과서를 개발
우리은행	AI 기반 이상거래탐지시스템(AI-FDS), 우리 사이렌
IBK기업은행	평일 야간, 주말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전담 인력 채용
케이뱅크	금융사기 조사 및 모니터링 등 업무별 전담 부서 운영
토스뱅크	금융사기 피해 고객 대상 '안심보상제' 운영



* 출처: 각 사

링 영상확인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상 금융거래가 발생하면 직원이 영상통화를 통해 해당 고객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한다. 신한은행은 금융거래 중인 고객이 예금주 본인과 다르거나 본인 확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거래를 중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처럼 은행들이 가장 신경쓰는 부분은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후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대포통장)를 정지하는 사후 처리 방식이 아닌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예방하는 것이다. 범주 수법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 편취형’으로 진화하면서다. 대면 편취형 비중은 2019년 8.6%에서 지난해 64.3%로 급증했다.

이상 징후 탐지를 위해 AI를 적극 활용

중이다. 우리은행은 AI 기반 이상거래탐지시스템(AI-FDS)을 시행하고 있다. 사기이용계좌적용 문구와 자동화기기이용내역 패턴 등을 분석해 AI분석모델에 반영해 보이스피싱 적중률을 높였다.

모니터링 전담 인력을 충원한 은행도 있다. IBK기업은행은 평일 야간, 주말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전담 인력을 채용했다. 모니터링 전담 인력은 제1금융권 경

력이 30년 이상 되는 지점장급 퇴직 직원들로 구성돼 있다. 케이뱅크도 금융사기 조사 부서와 모니터링 부서 등 업무별로 전담 부서를 두고 있다.

공공기관과의 협업도 마다하지 않는다. KB국민은행은 경찰청과 함께 대포통장 감축 및 정보 취약계층 고객 보호를 위한 지원 등 보이스피싱 근절에 나섰고 하나은행은 교육부와 함께 디지털 문해 교

과서를 개발한다. 또 금융사기 예방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교육 운영도 지원한다.

사후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 시스템도 마련 중이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사기범의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했어도 사기범이 곧바로 간편송금 계정으로 옮기고 이를 다시 타 은행계좌로 옮길 경우 피해 구제가 어렵다. 은행권은 고객이 피해를 입더라도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피해자 구제책을 만들었다.

신한은행은 신한금융의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및 예방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3년간 총 30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해 △피해자 중 취약계층 생활비 지원 △예방 교육, 보이스피싱 보험제공 △심리·법률 상담 △대국민 홍보·캠페인, 정책 개발 등을 추진한다. 토스뱅크는 금융사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안심보상제’를 운영한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24시간 모니터링했더니 피해규모 30% 뚝

보이스피싱 사전예방 ‘합격점’

2019년 7월, 당시 진옥동 신한은행장(현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보이스피싱과의 전면전에 나섰다. 진 행장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이스피싱 관련 정책을 강화해 고객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실행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종합대책 발표 다음날부터 ‘계좌 개설 및 한도해제 기준’을 한층 강화했고 대포통장·보이스피싱 피해 근절을 위한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펼쳤다.

신한, AI탐지 ATM 전 영업점 확대
국민, 모니터링 탐지율 34%로 높여
농협, 1분기 62억원 규모 피해 막아

금융사기 거래 분석 및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를 총괄하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랩(Lab)도 이 때 신설됐다. 이같은 노력은 계속됐다. 2021년 4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모니터링을 야간시간까지 연장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은행권 최초로 ‘인공지능(AI) 이상행동탐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을 전체 영업점으로 확대 시행했다. 신한은행의 전사적인 노력은 성과로 나타났다. AI 이상행동탐지 ATM 시스템은 올해 상반기 기준 약 2만5000건의 이상금융거래를 탐지했다. 이 중 1만900건의 거래를 중단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이처럼 시중은행들은 ‘고객들의 자산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며 피해 규모를 대폭 줄이고 있다.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다양해지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각 은행들이 내놓은 방안들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29.5%, 피해 금액은 29.8% 줄었다. 금융당국과 시중은행들의 전사적 노력이 뒷받침한 결과라는 게 시장의 판단이다.

각 은행별 보이스피싱 예방 성과를 봐도 알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AI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해 탐지율을 34.3%까지 높였다. KB국민은행은 최근 1년간 총 8620좌, 634억 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올해 1분기까지 예방 실적은 596계좌, 124억 원이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예방건수는 1만3015건으로 1814억 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올해 1분기까지 보이스피싱 예방 건수는 1687건, 피해 예방 금액은 274억 원이다.

전국에 가장 많은 영업점을 보유하고 있는 NH농협은행도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에 ‘진심’인 것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소비자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교육을 재개, 올해 1~3월까지 총 29회에 걸쳐 1400여 명의 교육을 완료했다.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도 피해자를 줄이는데 효과를 보고 있다. 농협은행은 올해 1분기까지 350건, 62억8700만 원의 보이스피싱을 예방했다. 지난해에는 총 3144건 298억 6700만 원의 피해를 막았다.

김병근 기자 nova@

금융의 모든 순간

미국주식 투자, 알람은 끄고



NH투자증권

24시간 NH투자증권을 켜자



NH투자증권이 드리는 해외 주식서비스

- ▶ 해외주식 수수료 거래
- ▶ 해외주식 적립식 서비스
- ▶ 월배당 미국주식
- ▶ 미국주식 공모주 청약

언제까지 알람 맞춰가며 미국주식 하실래요? 이제 알람은 썩 끄고! NH투자증권만 딱 켜세요!

NH투자증권에서는 24시간 미국주식 거래가 가능하니까요

*투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지보금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주식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해외주식 매매수수료 0.25%(미국, 온라인 기준) 및 제비용 0.0008%(미국주식 기준, 매도시, 1센트 미만일 경우 1센트 부과, 온/오프라인 동일, 국가별 상이발생하며, 기타 수수료/제비용에 대한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주식 24시간 거래] *미국 주간거래 서비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미국 금융산업규제국이 승인한 대체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지원* 미국 주간거래 미체결 주문은 프리마켓, 정규경, 애프터마켓으로 연결되지 않고 주간거래 종료 시 취소되며 증거금 해지는 주간거래 장 종료 후 순차적으로 처리 *거래량이 매우 적어 가격변동이 크거나 또는 가격이 왜곡될 수 있음. *당일 권리가 예정되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당사 또는 거래소에서 매매를 제한할 수 있음 *위 사유 외에도 시세확인의 및 주문전송이 정규장 대비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023-00859호 (2023.03.15 ~ 2024.03.14)

투자, 문화가 되다



DJ 추도식·원로 회동... 호남세력 결집 나선 이낙연

이낙연(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1일 서울 강서에 거주하는 호남 원로들과 비공개 만찬 회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종 사법리스크에 연루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는 가운데 당 핵심 지지층인 호남 원로와의 회동이다. 이 전 대표가 귀국 직후부터 호남 중심의 행보를 보여온 만큼 '포스트 이재명'을 겨냥한 지역 결집 시도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대표는 21일 저녁 강서 모처에서 지역 호남 향우회 간부급 원로들과 만찬 회동할 예

18일까지 사흘간 광주·호남행 DJ 14주기 추도식 참석 계획도 21일 서울서 원로들과 만찬회동 당 핵심 지지층 '호남 공략' 행보

정이다.

이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이 전 대표가 강서 호남향우회 원로들과 21일 식사할 예정"이라며 "원로들이 '얼굴 한번 보자' 고해서 (강서에) 오는 것"이라고 전했다.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내 예비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 전 대표의 선거전 물밑 관여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이 관계자는 "그런 건 없다"며 "원로들과 얼굴 보는 것 외에는 큰 의미가 없다. 가볍게 식사하는 자리"라고 선을 그었다.

강서지역 민주당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지원하는 강서구청장 후보가 특별히 있다고 듣지 못했다"면서도 "이 전 대표가 총선 전 중요한 보궐선거가 있는 강서에서 당에 충성도가 높은 호남 분들을 만나는 것에 주목할 필요는 있다. 이재명 대표도 신경이 안 쓰일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가 측근이 있는

지역을 위주로 호남 인사들과 접촉을 시도하며 전국 조직을 다지고 있다는 설도 나온다.

호남 출신 야권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각 지역 측근을 연결고리로 눈에 띄지 않게 호남 분들을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며 "대선 경선 전후로 이 전 대표의 호남 지지 기반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호남에서 다음 정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듯하다"고 전했다.

실제 이 전 대표는 이날부터 18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광주·전남에서 각계 인사와 만나 호남 민심을 훑는다. 특히 18

일에는 신안에서 열리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14주기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6월 말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후 광주 5·18 민주묘역, 국립서울현충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등을 참배하기도 했다.

정호영 기자 moonrise@



부친상 장례 절차 마친尹... 오늘 오후 한미일 정상회의의 출국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부친 고(故) 윤기중 교수 빈소에서 이틀째 조문객을 맞았다. 윤 대통령은 17일 장례 절차를 모두 마치고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빈소를 지키는 대신 경조휴가를 내고 18일 미국 워싱턴 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준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빈소에 도착했으며, 유족들과 입관식에 참석한 뒤 다시 조문객을 맞

전날 회의 준비 후 다시 빈소로 사상 첫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 北 위협 대응·공급망 정보 공유 정상회의 의제 막바지 조율 중

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중으로 삼일장 절차를 모두 마치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후 미국행 전용기에 오를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1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를 마치고 오찬에 참석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3국 정상 간 협의의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방미는 3국 정상간 협의에 초점을 맞춘 방문으로, 18일 캠프 데이비드 일정의 대부분이 정상회의에 할애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일정을 마친 당일 저녁 귀국길에 오를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6월과 11월, 올해 5월에 이어 취임 후 4번째 한미일 정

상회의이자, 역사상 최초로 단독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다. 199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처음으로 한미일 정상회의가 개최된 이래 지금까지 열렸던 총 12차례 회의가 모두 다른 국제 다자회의를 계기로 열렸다.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다뤄질 의제들은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15일 화상회담을 통해 정상회의 의제를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3국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

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협력력을 비롯해 공급망 정보 공유, 인공지능(AI)·사이버·경제안보 등 비군사 분야의 협력 방안 등의 수준을 세부 조율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앞서 13일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향후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핵심 골격을 만들고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3국 정상은 한미일 협력에 대한 공동비전과 기본 원칙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분야와 각급에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대환 기자 vishalist@

김부겸 "고인, 학자로서 존경받은 분" 손경식 "대원으로 떠나셔서 안타깝다"

이틀째 정재계 조문행렬

윤석열 대통령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의 빈소가 마련된 지 이틀째인 16일도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는 정재계 인사들의 조문행렬이 이어졌다. 당초 윤 대통령이 조화 조문을 최소화하고, 장례를 사흘간 가족장으로 치르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조문을 위한 각계 인사들의 발걸음이 계속됐다.

상주인 윤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 관련 업무를 본 뒤 오후부터 빈소를 지킬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날 오전 장례식장은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였다.

10시쯤부터는 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인들이 하나 둘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9시 54분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을 시작으로

로 김태호 의원, 국회부의장인 정우택 의원이 11시경 장례식장에 도착해 조문을 했다. 뒤이어 김오수 전 검찰총장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빈소를 찾았다. 김 전 총리는 조문 후 기자들에게 "고인은 학자로서 많은 존경을 받으신 분"이라며 "현직 대통령께서 재임 중 상을 당하셨기에 당연히 문상하러 왔다. 다른 이야기를 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후로도 초대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이종찬 광복회장과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장제원 의원 등이 장례식장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오후 2시 30분경 전날과 마찬가지로 지상 로비가 아닌 별도 입구를 통해 빈소에 입장했다. 2시가 좀 넘어 식장에 도착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조문을 마친 뒤 "(대통령 내외를) 뵙고 나왔다"며 "(고인에게



손경식(왼쪽 사진부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인제 전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친숙한 사이인데, 아드님 대통령 되셨으니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았을텐데 일찍 가셔서 안타깝다"고 전했다.

정의당 지도부도 비슷한 시각 장례식장을 찾았다. 이정미 대표는 배진교 원내대표와 함께 조문을 마치고 나와 "차분하게 조문하신 분들을 대통령께서 맞이하고 계신다"며 "아버님 잃은 슬픔을 잘 위로해드리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뜻을 잘 전해드렸다. 다른 정치적 대화를 할 수 있는 때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오후 5시경에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외에도 이인제 전 의원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황교안 전 총리, 박형준 부산시장, 조해진·박대출 의원, 김영환 충북도지사 등이 조문을 했다. 황 전 총리는 조문을 마친 뒤 "(안에서) '어려울 때 와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나눴다"며 "(국민의힘 의원들과는) 장제원, 조해진 의원 등과 지나가며 만났고, 대화나눌 시간은 안 됐다. 오늘은 고인의 명복을 비는 날"이라고만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에 이어 재계 인사들의 조문도 이어졌다. 전날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의 돌발 조문에 이어 손 회장도 이날 오후 2시 40분쯤 식장에 들어섰다. 그는 조문을 한 뒤 "개인적으로 와서 조의를 표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며 "(고인이) 대원으로 역할을 더 해주셔야 하는데, 순수한 분이 떠나셔서 무척 안타깝다"고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도 이날 조문을 위해 식장을 찾았다.

정영인 기자 oin@

당정 "단순 보조금·뿌려주기식 R&D 사업 없애겠다" '비효율 혁파 방안' 이달 중 발표

예산 삭감 등 대대적 손질 예고

정부와 여당은 연구개발(R&D) 분야 카르텔 타파를 위해 예산 삭감 등 대대적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또 국가연구기관 간 통폐합을 추진하는 등 강도 높은 쇄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 R&D 비효율성 혁파를 위한 실무 당정협의 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정부 R&D 카르

텔과 비효율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혁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당정은 특정 기득권 집단이 점유했거나 경쟁력이 없는 단순 보조금형식의 지원 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정

부 R&D 사업의 비효율이 상당히 축적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R&D 예산이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5년 만에 10조원이 늘었다"면서 "이러한 비효율을 혁파해야 세계와 경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지난 정부에서 사업 수가 급격히 증가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감염병 분야가 언급됐다. 박 의원은

"전 정부 들어서 소부장 사업 수는 2.7배, 감염병 분야는 3배가 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 단위도 한 700개에서 1500개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면서 "(그런데) 관련해 새로운 연구 실적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등 대대적 손질을 예고했다. 그는 "기

존에 중복되거나, 문제가 있는 사업들을 삭감해서 국제 먹거리로 나아갈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그게 국민이 원하고 나라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비효율 혁파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R&D 분야에 대한) 고민과 대책을 (당과) 함께 논의해 8월 중 발표될 방안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재 기자 silverash@



SANTA FE



Bluehands
 고객 곁에는 항상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정비/서비스, 홈플러스 서비스, 긴급출동, 블루멤버스

■ 구입 문의전화 및 고객센터, 긴급출동지원센터 080-600-6000 ■ 정부(산입부) 공인 표준연비 ▶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2.5 티보 AWD (18", 5/6/7인승): 복합 10.1km/ℓ(도심:8.8km/ℓ, 고속도로:12.2km/ℓ) | CO2 배출량 168g/km | 배기량 2,497cc | 공차중량 1,860kg | 8단 DCT (4등급) ▶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2.5 티보 AWD (20", 5/6인승): 복합 9.7km/ℓ(도심:8.5km/ℓ, 고속도로:11.6km/ℓ) | CO2 배출량 175g/km | 배기량 2,497cc | 공차중량 1,900kg | 8단 DCT (4등급) ▶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2.5 티보 AWD (20", 7인승): 복합 9.4km/ℓ(도심:8.2km/ℓ, 고속도로:11.3km/ℓ) | CO2 배출량 181g/km | 배기량 2,497cc | 공차중량 1,955kg | 8단 DCT (4등급) ▶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2.5 티보 AWD (21", 5인승): 복합 9.7km/ℓ(도심:8.5km/ℓ, 고속도로:11.6km/ℓ) | CO2 배출량 175g/km | 배기량 2,497cc | 공차중량 1,930kg | 8단 DCT (4등급) ▶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2.5 티보 AWD (21", 6/7인승): 복합 9.4km/ℓ(도심:8.2km/ℓ, 고속도로:11.3km/ℓ) | CO2 배출량 181g/km | 배기량 2,497cc | 공차중량 1,970kg | 8단 DCT (4등급) ▶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2.5 티보 2WD (18", 5/6인승, 빌드인럼 장착): 복합 10.8km/ℓ(도심:9.4km/ℓ, 고속도로:13.2km/ℓ) | CO2 배출량 156g/km | 배기량 2,497cc | 공차중량 1,795kg | 8단 DCT (4등급) ▶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2.5 티보 2WD (18", 5/6인승): 복합 10.0km/ℓ(도심:9.6km/ℓ, 고속도로:13.4km/ℓ) | CO2 배출량 152g/km | 배기량 2,497cc | 공차중량 1,795kg | 8단 DCT (4등급) ▶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2.5 티보 2WD (18", 7인승, 빌드인럼 장착): 복합 10.4km/ℓ(도심:9.1km/ℓ, 고속도로:12.8km/ℓ) | CO2 배출량 162g/km | 배기량 2,497cc | 공차중량 1,850kg | 8단 DCT (4등급) ▶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2.5 티보 2WD (18", 7인승): 복합 10.6km/ℓ(도심:9.3km/ℓ, 고속도로:12.9km/ℓ) | CO2 배출량 158g/km | 배기량 2,497cc | 공차중량 1,850kg | 8단 DCT (4등급) ▶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2.5 티보 2WD (20", 5인승): 복합 10.4km/ℓ(도심:9.2km/ℓ, 고속도로:12.5km/ℓ) | CO2 배출량 162g/km | 배기량 2,497cc | 공차중량 1,835kg | 8단 DCT (4등급) ▶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2.5 티보 2WD (20", 6/7인승): 복합 10.0km/ℓ(도심:8.8km/ℓ, 고속도로:12.0km/ℓ) | CO2 배출량 168g/km | 배기량 2,497cc | 공차중량 1,875kg | 8단 DCT (4등급) ▶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2.5 티보 2WD (21", 5/6/7인승): 복합 10.0km/ℓ(도심:8.8km/ℓ, 고속도로:12.0km/ℓ) | CO2 배출량 168g/km | 배기량 2,497cc | 공차중량 1,865kg | 8단 DCT (4등급)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 연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일 사양(구동축 인승,타이어) 모델에 "빌드인럼 장착"으로 별도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본차와 빌드인럼 장착 차량의 연비 통합 인증 사항입니다. ※ 급출발,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않습니다 ※ 정속주행을 합니다. ■ 현대자동차는 지점(대리점)의 카마스터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같은 차를 같은 가격으로 배운 거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상저하고 전망 유효… 中 부동산 위기 예의주시”

부총리 기자간담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최근 불거진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부실 여파가 당장 우리 금융시장과 기업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중국 부동산 부실 발(發) 리스크가 우리나라 금융 시장과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중국의 대형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타운)이 촉발한 현지 부동산업체 디폴트 위기감이 중국 경기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그 여파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연장

“10월엔 수출 플러스 진입 전망 변수 장기화면 전망 수정 가능”

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주변국 중 중국의 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 부총리는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우리 경제가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실물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당분간 중국 부동산업체 상황을 긴밀히 살펴보면 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필요할 경우 당국과 협의해 적절한 대응에 나서

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까지 경기가 어렵고 하반기엔 나아지는 ‘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 기관들에서 올해 하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1.7~2.0% 사이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두배 정도의 회복세를 전망한 것”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지금 시점에서 당초 경기 흐름 전망에 대해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최근의 중국 부동산 회사 문제 등의 추가적인 변수가 장기화하면 세계 각국은 물론 우리도 경제 전망을 일정 부분 수정할 수 있다”고 했다.

경기 회복의 관건인 수출 증가세 전환

시점에 대해서는 “이달은 휴가 기간이 겹쳐 통상 계절적인 이유로 수출이 다소 부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9월부터 무역수지가 기조적으로 흑자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고, 10월엔 수출이 플러스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수출 물량 지표들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을 고려하면 수출이 바닥을 다지고 회복을 위한 지지개를 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에 대해 추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이를 고려해 올해 10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력세율 조정 등으로

현재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된 상태다. 추 부총리는 “10월 말 이후 인하 여부는 국제유가 동향 등 살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결혼자금 증여세 1억 원 추가 공제가 상위 소득 14%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물가 상승을 고려했고, 조금 여유가 있는 부모가 증여세 걱정 없이 자녀에게 결혼자금을 증여할 수 있도록 비과세 금액을 소폭 늘렸다”며 “특히 자녀들에 대해 결혼 전후 2년 기간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줬기 때문에 출산 유도와도 연계된 조치”라고 강조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2027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최종 실증 나선다

450억원 예산 투입해 연구 실증 오늘부터 40일간 후보 도시 선정

2027년 자율주행 레벨4 상용화를 위한 마지막 실증 사업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범부처가 참여하는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서비스를 통합 실증하는 자율주행 리빙랩(LivingLab) 도시 선정을 위한 공모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1년부터 범부처(국토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 연구개발(R&D) 사업으로 1조1000억 원을 투입해 차량·부품 등 기반기술은 물론, 인프라, 법·제도, 서비스 등 2027년 융합형 레벨(Lv.) 4/4+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을 추진 중이다.

리빙랩 공모사업은 세계 최초 도시 단위의 자율주행 실증지역 조성을 위해 2027년까지 4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8대 공공서비스를 포함한 범부처

레벨별 차량 자율주행 기술 (레벨3부터 자율주행차로 분류)

	레벨2	레벨3	레벨4	레벨5
운전 주시	○	△	X	X
자율화 구간	특정구간	특정구간	특정구간	전 구간
작동 예시	조향 및 감속 동시 작동	고속도로 혼잡구간 주행지원 시스템	지역 무인택시	운전자 없는 완전 자율주행

* 출처: 국토교통부

연구 성과물을 실증한다. 8대 공공서비스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 △공유차 △도시환경서비스 △도로유지 △긴급출동 및 도로통제 △노선형 대중교통서비스 △교통사고 예방 순찰 등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범부처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 검증은 물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자율주행 기술·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리빙랩 도시 선정은 8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40일간 공모

를 거쳐 제안도시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및 발표평가를 통해 이뤄지며 10월 중 최종 후보 도시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대상은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인접한 n개), 기초지자체+기초지자체(인접한 n개)가 지원할 수 있다. 단 모든 지자체는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8대 공공서비스와 자율주행 혁신사업의 기술 실증으로 공공·민간·이용자 간 파트너십을 통한 혁신과 자율주행 산업 확산이 가능한 도시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달 28일 ‘리빙랩 공모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자율주행 리빙랩은 범부처 연구개발 과제의 핵심 사업으로 2027년 Lv.4 자율주행 상용화라는 정부 목표 달성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곽도훈 기자 sqood@



한은, 자동화금고시스템 시연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 화폐수납장에서 자동화금고 시스템이 시연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부산 전력반도체·울산 이차전지 단지에 9.7兆 투자

이창양 장관 부산·울산 현장 행보 “특화단지로 첨단산업 초격차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부산과 울산에 있는 특화단지를 시작으로 단지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이 장관은 이날 부산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과 울산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방문하고 “특화단지를 기반으로 첨단산업 초격차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부산 특화단지는 산업 전반의 전기화·첨단화로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화합물 전력반도체 시장의 교두보로 도약하기 위해 약 8000억 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특화단지 지정 이후 5000억 원 이상의 전력반도체 관련 기업의 추가투자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울산시 고려이연을 방문해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 산업통상자원부

논의되고 있는 등 기업집적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라는 특화단지 지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산업부는 1385억 원 규모의 전력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을 내년 착수하고, 265억 원 규모의 실증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업들의 화합물 전력반도체 시장 공략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어 방문한 울산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삼성SDI·현대자동차·고려이연 등 173개 기업이 참여 중이며, 2030년까지 8조 1000억 원의 민간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특화단지 지정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7000억 원의 신규 투자가 확정됐고, 9000억 원의 추가 투자도 논의되고 있는 등 기업들의 관심이 높다.

울산은 이 같은 민간 투자를 통해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급성장 중인 LFP 배터리 생산 공장을 국내 최초로 신설할 계획이다. 차세대 배터리 거점이 되기 위해 필수적인 핵심 광물과 제련기술 확보에도 집중 투자한다.

2030년까지 2조 원 이상을 투입해 광물 정·제련 과전구체 제조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울산시는 2025년까지 340억 원을 투입 차세대 배터리 파크를 조성해 울산의 마더팩토리 구축에 힘을 합친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ly@

공정위, ‘앱마켓 반경쟁’ 구글 시정조치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에 부과한 앱마켓 반경쟁행위 관련 시정조치 집행을 개시하고 이행점검에 나선다.

공정위는 구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결서를 지난달 말 구글에 송부해 시정조치 집행을 개시하고, 이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을 독점하는 사업자(구글 플레이)로서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2016년 6월~2018년 4월 모바일 게임사들의 자유로운 경쟁 앱마켓(윈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고 후발주자인 윈스토어가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하도록 해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

공정위는 올해 4월 구글의 해당 행위에 대해 과징금 421억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시정명령에는 경쟁 앱마켓에서의 게임 출시 시 앱마켓 피처링(1면 노

출), 마케팅 및 해외진출 등에 대해 구글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국내 모바일 게임사와 배포계약을 수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앱마켓 사업에서 공정거래 관련 내부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그 운용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정명령에 포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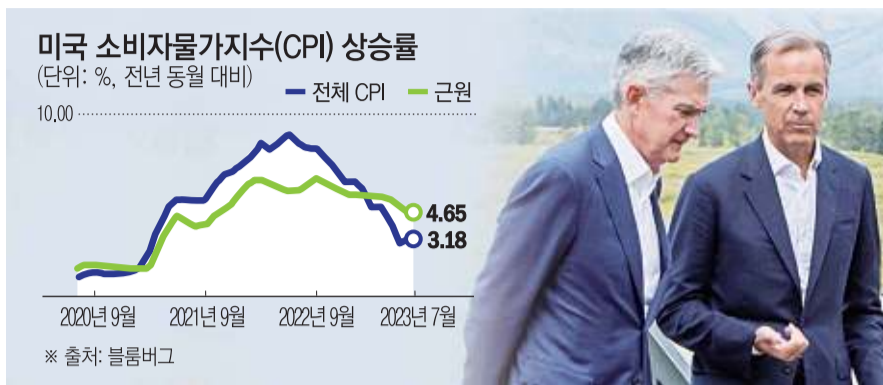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의 독점화는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시정조치는 앱마켓 시장에서 거대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의 독점력 강화에 제동을 걸고,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글에 부과한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점검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美연준, 금리논쟁 '추가 인상 → 동결 기간' 방향 전환

금리인하 대신 물가 목표 방점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 완화에 '골몰'

투자자들, 내달 금리 동결 기대
금리인하 개시 시점은 엇갈려



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논쟁의 초점이 바뀌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그간 '기준금리를 얼마만큼 올리느냐'가 연준의 주요 논제였다면 이제는 '얼마나 오래 현 수준의 금리를 유지해야 하나'로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직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7월 전년 동월 대비 기준 3.2%를 기록해 연준의 목표치 2%보다는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완

화하면서 연준의 고민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연준은 여전히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선언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자칭 '승리 선언'이 시장에서 긴축 기조가 끝나고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선 것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둔화하더라도 연준이 얼마나 오랫동안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에 논의의

시작하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제쳐두고 경제에 계속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되면 물가상승률이 목표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연준의 다음 행보에 대해서는 내부 인사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를 비롯한 일부 인사들은 '한동안' 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미셸 보먼 연준 이사를 포함한 다른 쪽에서는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연준 내에서 '매파'로 분류되는 닐 카시카리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들며 "연준은 아직 금리 인상을 종료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7일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기준금리가 꽤 최고 수준에 거의 근접했다고 보고 있다"면서 "우리가 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면 관건은 얼마나 오래 현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할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이달 24~26일 캔자스 시티 연은이 주최하는 연례 잭슨홀 심포지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 인사들이 기준금리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일단 투자자들은 대체로 연준이 9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11월 0.25%포인트(p)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약 3분의 1 정도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금리인하 개시 시점에 대한 시장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6월 공개된 연준의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4.6%로 내릴 것으로 전망했지만, 금리인하 개시 시점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연준의 현 기준금리는 5.25~5.50%다.

골드만삭스는 13일 보고서에서 연준이 내년 6월 말까지는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블룸버그가 지난달 13일부터 18일까지 이코노미스트 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분의 1이 내년 1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응답의 중간값은 첫 금리인하가 내년 3월 회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싱가포르, 세계 첫 스테이블코인 규제 확정

준비금 규모·상환기간 등 규제 제시
주요 10개국 통화 연동 코인에 적용
업계 "명확하고 투명한 지침 환영"

전 세계 각국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정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싱가포르가 처음으로 규정을 확정했다고 CNBC 방송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싱가포르 중앙은행인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공개한 규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위험성이 낮고 유동성은 높은 자산으로 준비금을 마련해야 한다. 준비금 규모는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의 가치와 같거나 그보다 높아야 한다.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고객의 상환 요청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액면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준비금 감사 결과를 포함해 고객에게 적절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진다.

해당 규정은 싱가포르에서 발행되고 주요 10개국(G10) 통화 가치에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에 적용된다.

MAS는 성명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는 스테이블코인을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교환 매체로 활용하기 위함"이라며 "법정화폐와 디지털 자산의 생태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가치는 약 1250억 달러(약 167조 원)에 달한다. 테더의 USDT와 서클의 USDC가 전체 가치의 약 90%를 차지한다. 업계는 싱가포르 당국이 명확한 규정을 제시해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서클의 압 키 찬 아시아태평양 정책 부사장은 성명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규제 프레임워크"라며 "혁신과 고객 보호의 균형을 맞추려는 당국에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테더의 파울로 아르도이노 최고기술책임자(CTO)도 별도 성명에서 "이번 규정안은 싱가포르에서 코인을 운영하기 위한 보다 명확한 틀을 제시해주는 동시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한다"고 높게 평가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한국? 폴란드?... 위풍당당 'K2'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15일(현지시간)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병사들이 한국산 K2 전차에 탑승해 군사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K2 전차 이외에 K9 자주포와 FA-50 전투기 등 한국산 무기가 대거 공개됐다. 폴란드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국산 무기를 대거 수입했다. 바르샤바/AFP연합뉴스

韓, 작년 백만장자 125만명 '세계 10위'

2023 글로벌 웰스 보고서

지난해 한국인 백만장자 수(성인 기준)가 125만4000명으로 세계 10위에 랭크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크레디트스위스(CS)와 UBS는 이날 발표한 '2023 글로벌 웰스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미국 달러 환산 기준 100만 달러(약 13억 원) 이상을 지닌 자산가 수가 전 세계에서 5939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말 6290만 명에서 350만 명가량 줄어든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177만 명의 자산가가 백만장자 대열에서 탈락하면서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뉴욕증시 벤치마크 S&P500지수가 19% 떨어지는 등 주식과 채권 시장이 폭락하면서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뒤이어 일본(47만 명), 영국(33만 명), 호주(36만 명), 캐나다(30만 명), 독일(25만 명) 순으로 백만장자

전체 백만장자 비중의 2% 차지
2027년 206만명... 9위 오를 듯
글로벌 자산가는 350만명 줄어

수가 감소했다. 보고서는 "전 세계 자산 손실이 북미 유럽과 같은 부유한 지역에 집중됐다"며 "이들 지역에서 잃은 자산 규모는 총 10조9000억 달러"라고 전했다.

한국의 백만장자 수는 전년도의 129만 명 대비 소폭 줄었다. 여전히 전 세계 상위 10위를 기록했으며 전체 백만장자의 약 2%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5년 뒤인 2027년 한국의 백만장자 수가 206만 명으로 64% 증가해 이탈리아를 제치고 9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보유 자산 기준으로 전 세계 상위 1%에 해당하는 한국인은 약 111만 명, 상위 10%에 속하는 한국인은 1856만 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국가별 1인당 평균 자산 규모에서는 한국이 23만760달러로 20위를 기록했고, 중간값으로는 9만2720달러로 18위에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전 세계 자산은 454조4000억 달러로 2021년 말 대비 11조3000억 달러(2.4%) 줄어들었다. 전 세계 자산이 감소한 것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성인 1인당 자산 역시 3198달러(3.6%) 감소해 8만4718달러가 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앤서니 셔록스 CS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자산 손실의 상당 부분은 인플레이션과 달러 대비 다른 통화 가치 붕괴에 따른 것이었다"며 "금융 자산의 감소가 두드러졌고, 부동산과 같은 비금융 자산은 급격한 금리 인상에도 탄력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올해 금리 인상으로 주택 가격 하락 시 금융과 비금융 자산의 상대적 기여도가 역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변효선 기자 hsbun@

빈패스트, 나스닥 데뷔 첫날 'GM·포드' 추월

주가 255% 폭등... 시총 850억달러

베트남 1위 부자 팜 닛 부영이 이끄는 빈그룹산하 전기차 업체 빈패스트 오토가 미국 나스닥거래소 상장 첫날 돌풍을 일으켰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을 통해 이날 나스닥에 상장한 빈패스트는 주가가 255% 폭등했다. 이에 빈패스트 시가총액은 단숨에 850억 달러(약 114조 원)로 급증해 미국 1·2위 자동차 업체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를 추월했다.

빈패스트의 성공적인 데뷔로 부영 회장의 순자산은 하루 만에 390억 달러 증가한 443억 달러를 기록했다. 부영 회장은 현재 빈패스트 보통주 23억 주의 99%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빈패스트는 본래 정상적인 기업공개

(IPO)를 계획했으나 최근 1년간의 적자로 투자자들의 열기가 사그라들자 스팩인 블랙스페이스에퀴지션과의 합병을 통해 우회 상장하는 방안을 택했다. 스팩과의 합병은 빈패스트의 기업가치를 230억 달러로 전제하며 이뤄졌는데 시장에서 몹쓸이 세 배 가까이 된 것이다.

빈패스트는 부영 회장이 2017년 설립한 전기차 제조업체다. 미국과 유럽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3000대의 전기를 북미로 수출했다. 지난해에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전기차 공장을 짓기 시작했다. 올해 판매량은 4만 5000~5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비드 맨스필드 빈패스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많은 전략적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이 줄을 서 있다"며 "향후 18개월 동안 확실하게 자금 조달 계획을 공식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이현 기자 cahyun@

현대차, 印 GM공장 인수... “전동화 전환 생산능력 확보”

세계 3위 車시장 공략 가속

현대자동차가 제네럴모터스(GM) 인도법인의 탈레가온 공장을 인수한다. 공장 인수를 통해 현지 생산능력을 약 100만 대로 끌어올리고, 인도 시장의 전동화 전환에도 적극 대응한다.

현대차는 16일(현지시간) 인도 하리아나주(州) 구루그람에 위치한 현대차인도법인(HMI)에서 GM인도법인(이하 GMI)과 탈레가온 공장 자산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HMI는 올해 안으로 인도 정부의 승인 등 선결 조건이 충족되면 GMI 탈레가온 공장의 특정된 대지와 설비에 대한 권리를 완전하게 취득하게 된다.

탈레가온 공장 2025년 양산시 생산능력 최대 100만대 수준 印정부 강력한 전동화 정책에 전기차 생태계 조성 앞장서 “최첨단 제조 허브 구축할 것”

현대차가 GMI 탈레가온 공장 인수를 통해 급성장하는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강화하고 전동화 전환에 필요한 생산능력을 확보한다.

인도 자동차 시장은 지난해 476만대의 신차가 판매되며 중국(2320만대), 미국(1420만대)에 이어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에 올랐다. 현재 380만 대 수준인 승용

차 시장은 2030년 500만 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또한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강력한 전동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인도의 전기차 판매 규모는 약 4만8000대 수준에 그쳤지만, 빠른 성장세를 바탕으로 2030년에는 연간 전기차 판매량이 100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는 이미 인도에서 전기차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첸나이 공장이 위치한 타밀나두주(州)와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10년간 전기차 생태계 조성 및 생산설비 현대화에 2000억 루피(약 3조2000억 원)

를 투자한다.

또한 배터리팩 조립공장 신설, 주요 거점 고속 충전기 100기 설치 등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선다.

탈레가온 공장은 연간 약 13만 대 수준의 완성차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차는 연내 인도 정부의 승인 등 선결 조건 달성 후 취득 절차가 완료되면 2025년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앞서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 라인 개선을 통해 첸나이 공장의 생산능력을 75만 대에서 82만 대로 상향했다. 이번 인수와 향후 추가 확대 계획을 고려하면 기존 공장을 포함한 현대차의 인도 내 총 생산능력은 최대 100만 대 수준까지 오르게 된다.

현대차는 2025년 탈레가온 공장 양산

돌입 이후 단계적 설비 개선을 통해 탈레가온 공장의 생산능력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탈레가온 공장 인수를 통해 현재 주력 제품군인 내연기관 모델의 생산능력이 추가로 확보되는 만큼 기존 첸나이 공장의 여유 능력을 신규 전기차 생산 라인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인수현대차인도아중동대권역장 부사장은 탈레가온 공장 인수 계약에 서명한 뒤 “올해는 현대차의 27년 인도 진출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2025년 탈레가온 공장 본격 가동을 시작으로, 인도 자동차 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최첨단 제조 허브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재 기자 2mj@



삼성디스플레이는 16일부터 서울 강남구 코엑스 열리는 ‘K-디스플레이 2023’에서 폴더블·슬라이더 등 혁신 제품들을 대거 공개한다. 사진은 전시회에 꾸러진 삼성디스플레이 ‘닥터 OLED의 이상한 실험실’ 체험 공간 모습(왼쪽 사진). 이번 전시회에서 LG디스플레이는 현재 최대 97인치부터 초소형 0.42인치 OLEDoS까지 OLED 플라잉업을 한 자리에 모았다. LG디스플레이 모델들이 ‘메타(META) 테크놀로지’가 적용된 3세대 OLED TV 패널을 감상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디스플레이·LG디스플레이

삼성그룹 전경련 재가입 준비위 “결론 못내 재논의”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전국경제인연합회 재가입 논의 끝에 의견 불일치로 결론을 짓지 못했다.

이찬희준법위 위원장은 15일 삼성 서초사옥에서 열린준법위임시회의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여러가지 다양한 배경의 위원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 다시 한 번 회의하기로 했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준법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삼성의 5개 계열사(삼성전자·SDI·생명·화재·증권)가 재가입할 경우 발생할 법적 리스크 등을 검토했다. 애초 준법위는 22일 정기회의를 개최하려 했으나, 전경련의 임시총회가 같은 날 개최되는 만큼 미리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임시회의를 소집했다.

이 위원장은 “많은 의견이 나왔지만, 완전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준법위는 18일 오전 7시에 임시회의를 다시 열고 전경련 재가입을 논의하기로 했다. 삼성의 복귀 조건으로 ‘정경유착 논란에 다시 휘말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권고안 등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재계에선 삼성의 재가입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나머지 그룹도 동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욱 기자 toto@

“미래 잇는 혁신기술”... 삼성·LGD가 만든 디스플레이 신세계

16~18일 ‘K-디스플레이 2023’ 국내외 180여 개사 참여 최대

“직접 눈으로 보는 듯한 느낌이지요?”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K-디스플레이 2023’에 전시된 QD-OLED에 대한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전시회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의 삶으로 가는 여정의 큰 발걸음’이라는 주제로 롤러블, 슬라이더블, 디지털 콕핏(Digital Cockpit)용

밴더블 기능이 탑재된 디스플레이 등 혁신 제품들을 대거 선보였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색 체험으로 ‘닥터 OLED의 이상한 실험실’을 오픈해 방송, 가벼움, 내구성 등 기술력을 뽐내며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지난 5월 ‘SID 2023’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12.4형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여러 형태로 접을 수 있는 폴더블 제품과 화면이 확장되는 슬라이더블 제품들도 전시했다.

LG디스플레이 전시 부스에서 눈길을 끈 건 OLED TV 패널이었다. LG디스플레이는

현재 최대 크기인 OLED TV 패널인 97인치부터 42인치까지 모든 제품군을 한 자리에 모았다.

메타 테크놀로지를 적용한 3세대 OLED TV 패널은 최대 휘도가 2100니트(HDR 기준)로 기존 OLED TV 패널 중 가장 밝은 화면을 구현해낼 수 있다. 완벽한 블랙, 자연 그대로의 다채로운 빛과 색을 정확하게 표현해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허무는 몰입감을 선사했다.

게임에 최적화된 ‘45인치 울트라 대형 OLED 패널’과 ‘27인치 OLED 패널’은 현재 패널 중 가장 빠른 0.03ms의 응답

속도와 고주사율(240Hz)로 선명하고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선사했다.

올해로 22회째를 맞은 ‘K-디스플레이 2023’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디스플레이 산업 전문 전시회다.

정호영 LG디스플레이 사장 겸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OLED로의 전환, 모빌리티 시너지 강화, 메타버스 등 3가지 성장 동력의 부가가치를 늘려가면서 지속적인 성장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SK은, 1.5兆 투자해 서산공장 생산능력 4배 확대

충남도·서산시와 투자협약 체결 서산 오토밸리 내 제3공장 증설

SK은이 국내 배터리 전조 기지인 서산공장에 대규모 증설 투자를 단행한다. 2025년까지 1조5000억 원을 투입해 생산능력을 현재의 네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SK은은 16일 충청남도, 서산시와 충남 홍성군의 충남도청에서 ‘SK은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태홍 충남지사, 이완섭 서산시장, 지동섭 SK은 대표이사 사장(CEO) 및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SK은은 충남 서산 오토밸리 내 4만 4125㎡(1만3348평) 부지에 제3공장을 증설한다. 투자액은 1조5000억 원으로 SK은의 국내 투자 가운데 최대 규모다. 충청남도와 서산시는 인허가를 비롯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3공장은 2025년까지 증설을 완료한 뒤 설비 교체, 공정 개선 작업을 통해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최대 14GWh(기가와트시) 생산 규모를 갖추게 된다. 기존 1·2공장도 라인 개조 등 공정 개선 작업을 거쳐 기존 5GWh에서 6GWh까지 생산능력을 늘린다.

SK은의 2025년 국내 총 생산능력은

현재의 약 네 배 수준인 20GWh가 된다. 이는 연간 전기차 28만 대 분량이다.

공장 증설에 따른 고용 창출은 물론 국내 배터리 장비 및 원소재 업체로의 낙수 효과도 예상된다. SK은은 서산 3공장에 최신 설비들을 도입해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고 제조 운영을 최적화할 계획이다. 기존 라인 대비 30% 넘게 생산 속도가 개선되고, 공정 정확도도 높인다.

지동섭 SK은 사장은 “이번 투자는 국내 배터리 생산 역량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며 “과감한 투자로 글로벌 선도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



LG전자, 독자 ‘유럽형 스마트코티지’ 공개

LG전자는 내달 1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3’에서 고효율 에너지 기술을 집약한 지속가능한 주거 생활 솔루션 ‘LG 스마트코티지’를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스마트코티지는 공간·가전·서비스 결합형 소형 모듈러 주택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스마트코티지는 유럽 시장 고객들의 선호에 맞게 내부 구조를 변경했다. 사진제공 LG전자

野 만난 중소기업계 “기업승계 증여세 20년 분납 필요”

중기중앙회 野초정 간담회

2세들의 사업 다각화 열어줘야 장수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 커져
자율과세 구간 300억 이하 10% 초과할땐 20%로 세법 개정해야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박광온(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중소기업중앙회

#육식 자재를 제조하는 A사의 주력제품은 플라스틱 자재(중분류 22)지만 신사업은 절수형 양변기(중분류 23)다. 현행 규정상 기업주가 살아있을 때 주된 사업으로 성장할 경우 기업으로 인정되나, 사후 성장 시에는 기업으로 인정될지 불확실하다.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안 보완 등 다양한 건의 사항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초청 중소기업인간담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재정 산자중기위원장 등 10명,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중소기업단체, 업종별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기업승계 활성화 방안 △기업 간 거래 시 협동조합 담합 배제 △벤처창업 생태계 민간 참여자 확대 △이벤트산업발전법 제정 등 26건의 중소기업 현안이 논의됐다.

송치영 한국산업융재협회 회장은 “7월 27일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는데,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하고 자율과세 구간을 확대하는 조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자율과세 구간을 300억 원 이하는 10%, 초과는 20%로 하도록 하고,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 “기업 승계 이후 업종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지나친 규제”라며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내에서만 변경 가능한 것을 대분류 내 변경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 “이를 완화하는 것은 2세들이 사업 다각화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원활한 승계를 통해 중소기업이 장수기업으로 성장하면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법 시행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 유예를 줬으나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존폐 위기에 맞서 대응하느라 준비하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며 “유예기간 추가 2년 연장을 부탁드립니다”고 호소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 법 적용 시행은 대부분 중소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조치”라며 “실업자 양산과 경제를 약

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모태펀드 예산을 대폭 증액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와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한다는 의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벤처펀드의 세제 혜택 확대도 민간기업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을 촉진하고, 너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해 규제개혁을 통한 신산업 창출이 이뤄질 수 있다고도 건의했다.

지역 중소기업의 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에 주는 혜택뿐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지원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도 나왔다.

임병훈 이노비즈협회 회장은 “모두 기업에 지원하지, 실질적 자산인 R&D 직원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며 “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이동할 때 직원들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는 소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비수도권이 노비즈기업 R&D 인력에 한해 연구활동 소득세 비과세 한도금액을 월 5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방안도 제시했다.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도를 이직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만연하면서 중소기업은 인력난이 심화하고 근무 분위기 저해, 도입 비용 손실 등 무유형의 손실을 보고 있지만, 대응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변경 횟수를 현 5회에서 3회로 줄이고 악의적인 사업장 변경 요구 외국인 근로자는 강제 출국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재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정부 세제 개편안

자율과세 구간 확대	증여재산 300억원 이하 증여세 10%, 초과 시 20%
연부연납 기간 연장	현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
업종변경 제한요건 완화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내 변경 허용

폭염·엔데믹에 수영복 잘 팔리네 배럴,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상반기 매출 76% 증가한 242억

스포츠 의류 기업 배럴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여름 스포츠를 즐기는 이들의 수요 증가에 실적 회복세가 도드라졌다. 이른 무더위와 원가 절감 등의 체질 개선 노력의 효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배럴의 연결 기준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은 33억 원으로 전년 동기 50억 원 손실에서 흑자 전환했다. 매출액도 137억 원에서 242억 원으로 76% 성장했다.

정부가 6월을 기점으로 사실상 엔데믹을 선언한 이후 실외 활동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이상고온 현상으로 이른 무더위가 시작되는 등 야외 스포츠 활동이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대주주 변경 이후 원가 등 비용 절감 등의 체질 개선도 한몫했다.

지난해 더네이처힐딩스에 인수된 후 체질 개선이 신속하게 이뤄졌다. 피인수 이후 배럴은 주력 아이템 위주의 상품 구성을 통해 안정적 판매 회복에 집중했다. 특히 실내 수영복 등의 스킵 카테고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네 배 이상 증가했으며, 용품카테고리 매출은 세 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상반기 실적으로 보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2019년의 상반기보다 높은 실적이다. 당시 연간 실적은 매출액 599억 원, 영업이익 84억 원이었다.

여름 스포츠가 가장 활발한 달인 7~9월이 3분기에 몰린 것도 향후 매출 증가세 기대감을 키운다. 다만 회사 측의 올해 매출 목표치는 55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배럴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매출액 회복 자체는 엔데믹 효과로 인한 것으로 본다”며 “원래 6월에 열린 팝업 스토어(이벤트 판매점)를 4~5월 개시해 고객 접점을 높인 것도 주효했다”고 말했다.

배럴은 각종 스포츠의류, 캐주얼의류 및 스포츠용품 등의 제조 및 유통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특히 래시가드(긴소매 수영복), 실내 수영복으로 대표되는 워터스포츠의류와 애슬레저웨어 기반의 요가, 피트니스웨어 및 라이프스타일 웨어를 주력 제품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주요 제품 래시가드는 비키니 등으로 몸매를 드러내는 수영복과는 달리 소매가 긴 티셔츠 타입의 스포츠 웨어로 상체를 가려주면서 지나친 햇빛 노출에 의한 화상이나 찰과상 등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김우람 기자 hura@

50+세대 고품격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
8월호 발매

BRAVO SPECIAL
新식문화, 新보릿고개

- PART 1. 달라지는 외식산업 지형 '큰손' 시니어를 잡아라
- PART 2. 파장면 한 그릇 배달, 이렇게 힘들었나?
- PART 3. 많이 쓰는 3대 배달 앱 비교
- PART 4. 키오스크·테이블링·QR 놓아지는 외식 문턱
- PART 5. 독자 체험, 밀키트에 도전하다
- PART 6. 혼밥은 그만, 1인 가구 식사 지원 제도

BRAVO INTERVIEW

배우 심형탁
‘결혼’으로 새 인생 시작

최순호 수원FC 단장
나의 축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Monthly Theme

파크골프 신드롬

지역 문화유산 순례기
신선을 마음에 품었걸랑 정자에 오르라

귀농귀촌
목심에 휘둘리는 삶은 난 이제 싫어!

냉채족발과 부산어묵탕

브라보 여행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 싱그러운 마을

법률 가이드
“받은 것 없는데 상속세를 내라고?”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SEC, 예상 깨고 “항소”... ‘리플 증권성 판단’ 2라운드 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랩스와 소송에 중간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리플(XRP) 증권성 논란이 재점화 될 조짐이다.

1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SEC는 9일(현지시간) 아날리사 토레스 미국 연방판사에 중간 항소 의사를 담은 서류를 제출했다. 지난달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쳐 대중에게 판매된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며 약식 판결을 내렸다. 업계는 해당 판결을 두고 리플의 승소라고 봤지만, SEC는 여전히 리플이 증권이라는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테라-루나를 증권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레이코프 판사는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한 코인은 증권으로 보지

않고, 개인 투자자에게 2차(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에서 판매한 코인은 증권으로 보지 않는 판매 방식에 따른 구분을 거부한다”며 뉴욕 남부 지방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만, 개인 투자자에게 2차(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에서 판매한 코인은 증권으로 보지 않는 판매 방식에 따른 구분을 거부한다”며 뉴욕 남부 지방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업계는 지난달 리플 약식 판결 직후 SEC가 항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예측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항소를 위해서는 리플이 증권성이 있다는 보다 실질적인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뒤이어 또 다른 지방법원에서

리플랩스·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 타임라인

2020년	12월 22일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랩스에 소송 제기
2021년	2월	리플랩스 “리플은 증권 아니고 가상자산” SEC 주장 반박
2022년	9월	SEC-리플, 법원에 약식 판결 요청
	7월 13일	뉴욕 남부지방법원 약식 판결 “리플 증권 아냐”
2023년	8월 1일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테라-루나 증권”,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성을 구분하는 접근법을 거부한다”
	8월 9일	SEC,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약식 판결에 대한 항소 의사 담긴 서류 제출

가상자산 증권성에 대한 다른 판결을 내렸고 SEC가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중간 항소 의사를 밝혔다.

업계에서는 SEC가 항소 의사를 밝힌 데 있어 리플 증권성을 밝힐 증거가 있다 기보단 정책적인 이유가 배경에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업계 관계자는 “SEC는 여태껏 리플이 증권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사법적 판결이 났다고 한 순간에 기초를 바꾸기에는 부

담이 될 것 같다”며 “리플이 선례로 사용돼 다른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약식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임기는 2026년 6월로 약 3년 정도 남아 당분간 SEC가 증권성을 가진 가상자산을 보는 시선도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리플랩스 약식 판결 승소 이후 SEC 태도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SEC 규제 관할권인 미국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크라켄 등은 SEC의 항소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에서도 리플 재상장을 발표했다.

10일(현지시간)에는 또 다른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제미니도 리플 재상장 계획을 밝혔다. 제미니는 SEC가 리플랩스에 소송을 제기한 2020년 12월 리플을 상장 폐지했다. 리플랩스와 SEC의 싸움은 최종 판결 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SEC 입장에서는 승소 여부를 떠나서 항소를 통해 최종 판결 전까지 증권성 여부가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끌고 가고 싶을 것”이라며 “리플은 현재 부분 승소 판결까지만 유리한 상황에서 SEC와 굳이 합의를 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희성 기자 yoonheesung@

국내 게임사 첫 자체 AI 언어모델 베일 벗은 엔씨소프트 ‘VARCO’

엔씨소프트가 국내 게임사 최초로 자체 개발한 AI 언어모델 ‘VARCO(바르코) LLM’를 16일 공개했다. ‘VARCO’는 엔씨의 AI 언어 모델 통합 브랜드 명칭으로, ‘AI를 통해 당신의 독창성을 실현하세요(Via AI, Realize your Creativity and Originality)’라는 의미를 지녔다.

‘VARCO’ 브랜드로 운영되는 자체 언어모델(LLM)의 종류는 크게 △기초 모델(FOUNDATION) △인스트럭션 모델



소·중형 규모 모델 우선 출시
고품질 데이터 위주로 학습해
쉽고 편리하게 비즈니스 활용
영어사용 모델도 이달 중 출시
아마존 입점... 한달 무료 이용

이날 엔씨는 개인과 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소·중형 규모

의 한국어 전용 ‘VARCO LLM’을 우선 공개했다. 해당 모델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엔씨가 직접 선별한 고품질 데이터를 위주로 학습해,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한국어와 영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 중언어(bilingual) 모델 역시 이달 안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후 순차적으로 규모 별 언어 모델을 종류에 맞춰 공개한다.

‘VARCO LLM’ 기반 생성 AI 플랫폼인 △이미지 생성툴(VARCO Art) △텍스트 생성 및 관리툴(VARCO Text) △디지털휴먼 생성 및 편집, 운영툴(VARCO

Human) 3종도 공개했다. ‘VARCO Studio’라는 명칭으로 서비스될 생성 AI 3종은, 게임 개발에 필요한 기획과 아트 등의 분야에서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바르코’는 국내 기업이 개발한 AI 언어 모델 최초로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 점프스타트(Amazon SageMaker JumpStart)를 통해서 배포된다.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점프스타트는 기초 모델, 기본 제공 알고리즘과 사전 구축된 머신러닝

솔루션이 포함된 머신러닝 허브다. 아마존과 협업을 통해 이 사용자들은 한 달간 무료로 ‘VARCO LLM’을 사용할 수 있다.

엔씨소프트 이제희 최고 연구책임자(CRO)는 “VARCO는 현재까지 공개된 유사한 크기의 한국어 언어모델 대비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며 “앞으로 VARCO를 통해서 게임 콘텐츠 개발은 물론 다양한 도메인에서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엔씨는 이날 공개한 ‘VARCO LLM’을 기반으로 디지털 휴먼, 생성형 AI 플랫폼, 대화형 언어모델 등 다양한 AI 연구와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외에도 교육, 금융, 바이오 분야 등의 파트너들과 협업을 통해 전문지식을 결합한 도메인 전용 모델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서은 기자 zion0304@

바이낸스 앱, 국내 MAU 23만명...코빗+고팍스 ‘홀쩍’

업비트·빗썸·코인원 이어 4위
원화 거래·한국어 미지원 불구
‘선물 거래’ 국내 이용자수 급증
원화거래소와의 입출금도 가능

“거래량·이용자수 韓시장 매력적
해외 거래소 국내 진출 더 늘 것”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앱의 월간 국내 활성사용자 수(MAU)가 약 23만 명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 원화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 이어 4 번째로 많은 규모이다.

16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어플리케이션의 MAU는 평균 23만 965 명으로 분석됐다. 올해 2월 23만 8487명 이었던 바이낸스 앱의 국내 MAU는 4월 2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6월 21만 9010명, 7월 21만 5743명으로 소폭 하락세를 그렸다. 이는 지난 6개월간 평균 13만 1799명이었던 코빗과 평균 MAU 3만 6123명을 기록한 고팍스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MAU가 많다는 건 그만큼 바이낸스 앱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이다. 바이낸스의 국내 거래량 역시 이와 비슷할 것으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올해 5월 국내 이용자의 바이낸스 거래량은 약 583억 달러로, 전체의 약 13%를 차지했다. 이는 국가별 통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규모이다.

바이낸스는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고,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가 없어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용자들이 많은 건 국내 거래소에는 할 수 없는 선물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WSJ에 따르면 국내 이용자의 거래 중 98%가 선물 거래에 해당했다.

또 바이낸스의 경우 국내 3대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 트래블러 화이트리스트로 등록돼있어 신원 인증(KYC)만 마치면 손쉽게 입출금을 할 수 있다. 트래블러 화이트리스트는 각 가상

〈월간 활성사용자 수〉



자산사업자의 내부 기준에 따라 화이트리스트로 분류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만 송·수신을 허용하는 정책이다. 선정 기준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의 개별적인 고유 위험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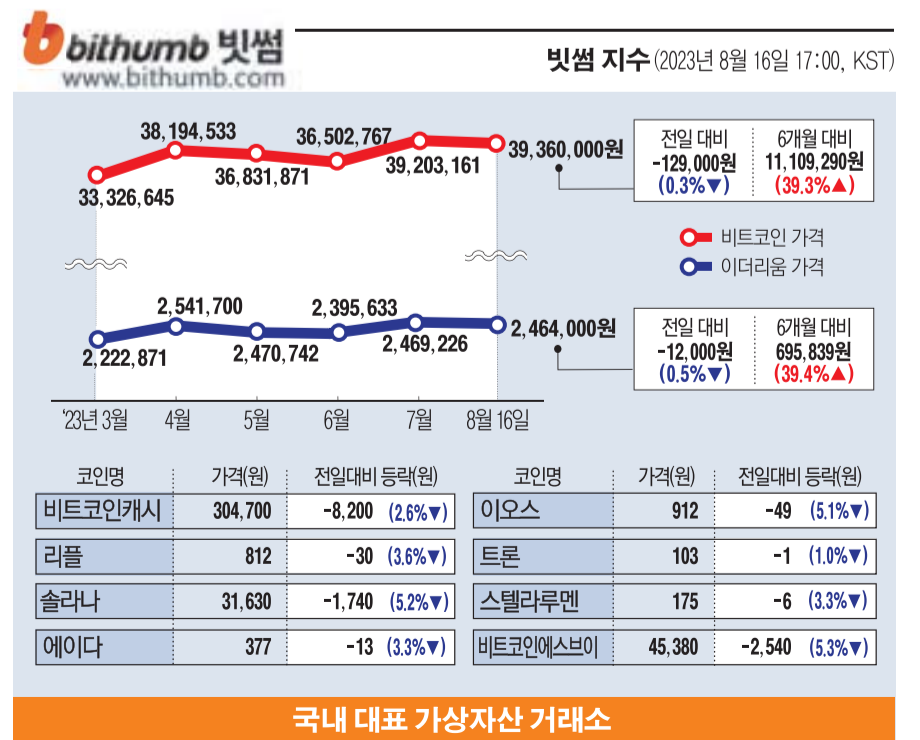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일단 업비트의 거래량과 이용자수를 보면 월드클래스 인 것 같다. 한국 시장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걸 보여준다”면서 “그만큼 원화 시장이 매력적이기에 바이낸스를 비롯해 해외거래소들이 열심히 국내 진출을 타진 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바이낸스는 현재 고팍스 인수 절차를 밟으며 국내 시장 문을 두드리고 있다.

한편,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MAU가 가장 높은 가상자산 거래소

앱은 업비트로 나타났다.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업비트의 평균 MAU는 328만 746명으로 같은 기간 평균 100만 5432명이 사용한 빗썸과 3배 넘게 차이났다. 해당 기간 코인원의 평균 MAU는 31만 6277명으로 분석됐다.

또 해당 기간 코빗을 제외한 모든 원화 거래소가 MAU 하락세를 그렸다. 올해 하반기 고팍스는 2월 MAU 4만 2556명에서 3만 3059명으로 22.3% 하락했고, 이어 코인원 20%, 빗썸 14.8%, 업비트 6.8% 순이었다. 같은 기간 바이낸스 역시 9.5% 하락했다. 반면 코빗은 2월 MAU 11만 8816명에서 7월 13만 1799명으로 16.5% 상승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LH, 2곳 계약 중단...서민 주거불안 커지나

**무량판 시공 철근 누락 단지
양산사송 신혼타운·화성비봉
“일정 지연·순연되는 곳 늘어”
공공주택 공급계획 차질 우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 단지 중 보강 철근 누락 단지 2곳이 선착순 계약을 중단했다. 두 단지가 동시에 선착순 계약을 중단한 것은 철근 누락 사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장기적으로 공공 분양단지 기피와 LH 조직 개편 영향으로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어 서민 주거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본지 취재 결과 '양산사송 A2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과 '화성비봉 A3블록' 공공분양 두 단지는 선착순 계약 중단을 잇따라 공지했다. 양산사송

신혼희망타운은 이날 오전부터 선착순 계약을 중단했고, 화성비봉은 다음 달 1일부터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두 단지는 모두 LH가 밝힌 무량판 구조 시공 단지로 보강 철근 부실 우려가 불거진 곳이다. 양산사송은 LH 최초 발표 때 포함된 단지로 오는 12월 29일 입주를 앞두고 공사 중이다. 화성비봉 단지는 LH가 추가로 밝힌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 10곳 중 한 곳으로 역시 공사 중이다.

두 단지의 계약 재개 시점은 안갯속이다. 양산사송 단지는 중단 사유를 따르기 재하지 않았고, 계약 재개 시점도 밝히지 않았다. 화성비봉은 중단 사유로 '유상읍 선 변경 등 사유로 추후 입주자모집공고 재시행'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부적인 선착순 계약 재개 시점은 밝히지 않아 사실상 임의 중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 단지는 잔여 가구 계약을 마친 것

도 아니다. 이날 기준 화성비봉 단지 수의 계약 대상 가구 수는 전용 59A㎡형은 14가구, 전용 59B㎡형은 44가구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산사송 A2단지는 잔여 가구도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앞서 공공분양 단지 중 잔여 가구를 100% 분양한 경우 '잔여 가구 분양 완료'를 중단 사유로 밝힌 만큼 양산사송 단지는 계약 완료에 따른 중단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공공분양 단지 중 선착순 계약을 중단한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 보고 있다. 최근 3년간 공공분양 단지 중 계약 중단 사례를 보면 잔여 가구 분양 완료(의정부고산 S3·동두천송내 S1 등) 등을 제외하면 공급조건 변경(화성동탄2 C26 오피스텔)과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의정부고산 S6)를 포함해 5건에 그친다. 양산사송 사례처럼 이유를 밝히지 않고 중단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LH 관계자는 "화성비봉의 경우 선착순 계약을 중지하고, (보강을 완료했지만) 부실시공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사태로 공급 일정이 지연 또는 순연되는 곳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이번 LH 보강 철근 누락 사태 영향으로 공공분양 단지 공급 계획이 늦춰져 서민 주거 불안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올해 들어 청약올 진행한 LH 공공분양 단지는 7월 분양한 화성태안 B3이 유일한 상황이다.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와 원자재 가격 인상, LH 부실시공 등이 겹치면서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공급이 침체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공주택 공급 추진 동력도 약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집값 오른다”

매매심리 117 '상승' 전환
전세도 '하강'→'보합'으로

전국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주택매매심리는 반년째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세 수요도 꾸준히 늘어 '하강' 국면에서 '보합'으로 전환됐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7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기준 주택매매시장 소비자심리지수는 117.0으로 전월(114.1) 대비 2.9포인트(p) 올랐다. 이에 지수가 115를 넘으면서 기존 '보합' 국면에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됐다.

수도권은 지난달 121.0으로 전월(115.8)보다 5.2p 상승했다. 서울은 123.7로 전월(119.9)보다 3.8p 급등했다. 경기는 지난달 121.0으로 6월 114.9보다 6.1p 상승했다. 인천 역시 109.0에서 113.6으로 4.6p 올랐다.

비수도권은 지난달 112.4로 집계돼 전월(111.7) 대비 0.7p 올랐다. 집값 강세가 이어지는 세종은 지난달 127.2를 기록해 전월(126.6) 대비 1.4p 상승했다.

주택 전세 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기준 95.4로 전월(92.4) 대비 3.0p 상승했다. 토지시장은 전월(87.4) 대비 1.7p 오른 89.1을 기록했다. 토지시장은 줄곧 내림세를 기록했지만, 지난달 소폭 반등에 성공하면서 주택 매매·전세와 함께 소비 심리가 개선됐다.

한편,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0~200 사이값으로 표현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월 대비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로 인한 비용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수가 95 미만이면 하강 국면,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하며 95~115 미만이면 보합으로 분류한다.

정용욱 기자 dragon@

건설사 임원 '보수킹'은 GS건설

건설업계에서 GS건설 임원들이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은 업계 평균을 3배 이상 웃돌아 유일한 10억 원대를 기록했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2023 시공능력평가' 상위 30개 건설업체 중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21개사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의 올해 상반기 평균 보수액은 3억3390만 원으로 집계됐다.

보수액이 가장 많은 곳은 GS건설이다. GS건설 등기이사는 평균 10억5500만 원을 받았다. 허창수 회장이 12억3200만 원, 임병용 부회장이 8억7700만 원을 각각 수령했다. 허 회장의 보수는 기본연봉 7억9500만 원, 담당 직무와 역할

에 따라 지급하는 역할급 4억3700만 원이다. 상여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외 등 급여를 제외한 다른 보수는 없다. 임 부회장이 마찬가지로 급여에 해당하는 기본연봉과 역할급만 받았다.

GS건설 다음으로는 SK에코플랜트(8억3900만 원), KCC건설(6억5300만 원), 삼성물산(4억4300만 원), 태영건설(3억9000만 원) 순으로 등기이사의 보수가 많았다. SK에코플랜트는 박경일 사장이 등기이사 보수 총액 16억7700만 원의 약 73%에 해당하는 12억1900만 원을 받았다. 지난해 성과급이 상반기 중 지급된 영향이 컸다. KCC건설은 정봉열 회장이 등기이사 보수 총액 13억8720만 원 중 80%가량인 10억9351만 원을 받았다. 삼

상반기, 등기이사 평균 10.5억원
SK에코플랜트·KCC건설 뒤이어

성물산과 태영건설은 특별히 더 많이 받은 사람은 없다. 삼성물산은 고정석 상사 부문장이 6억3500만 원을 받았지만, 오세철 건설부문장을 비롯한 다른 등기이사의 보수는 5억 원 미만이다.

조사대상 중 등기이사 평균보수가 가장 적은 곳은 계룡건설로, 상반기 평균 1억1000만 원을 받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모두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최대주주나 그 일가에 속한 임원이 전문경영인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경향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합리적, 객관적 근거 없이 이런 행태를 지속하는 것은 기업 내외부 모두에서 공감을 얻기 힘들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

주요 건설사 등기이사 평균 보수
(단위: 만원, 상반기 기준)

GS건설	10억5500
SK에코플랜트	8억3900
KCC건설	6억5300
삼성물산	4억4300
태영건설	3억9000
디엘이앤씨	3억4400
현대건설	3억2900
포스코이앤씨	3억1500
서희건설	3억900
현대엔지니어링	2억8500
롯데건설	2억5400
대우건설	2억4600
아이에스동서	2억1600
금호건설	2억1500
코오롱글로벌	2억400
동부건설	1억8500
DL건설	1억8300
HDC현대산업개발	1억5700
HD D&I 한라	1억5300
한신공영	1억3700
계룡건설산업	1억1000

※ 출처: 금융원 전자공시

BMW 리콜 서비스.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 공고를 합니다. BMW는 모든 차량이 항상 뛰어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출시 이후에도 엄격한 자체 품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품질 결함을 발견하여 리콜을 실시합니다.

인터랙션 바 교체

BMW 본사에서 자체 품질 조사 결과 2022년 09월 02일부터 2022년 09월 15일까지 제작된 BMW 740i, i7 xDrive60 총 2개 차종에서 *인터랙션 바의 제작결함을 발견했습니다. 인터랙션 바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량의 배터리가 방전 또는 분리될 경우 인터랙션 바에 위치하고 있는 비상점멸표시등 스위치의 조명이 점등되지 않고 스위치를 누르더라도 비상점멸표시등이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조종장치등)의 조명기준 및 제45조 비상점멸표시등의 작동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인터랙션 바로 교체하는 리콜을 진행합니다.

*인터랙션 바: 실내 대시보드에 장착된 조명 및 기능 스위치로서 비상점멸표시등, 환기설정, 후면 유리 열선 작동 스위치가 포함된 실내 트림

프론트 드라이브 샤프트 교체

BMW 본사에서 자체 품질 조사 결과 2022년 11월 21일부터 2023년 04월 12일까지 제작된 BMW iX1 xDrive30 일부 차종에서 전방 *드라이브 샤프트의 제작결함을 발견했습니다. 전방 드라이브 샤프트의 볼 허브 조인트 조립 공정상의 오류로 인하여 드라이브 샤프트와 구동전동기가 분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행 중 경고등이 점등되고 구동력 손실로 차량이 서서히 멈출 수 있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생산된 전방 드라이브 샤프트(차량정보에 따라 좌측 또는 우측 또는 모두)로 교체하는 리콜을 진행합니다.

*드라이브 샤프트: 모터의 구동력을 바퀴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부품

위 리콜은 2023년 08월 17일부터 1년 6개월 이상 전국 BMW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진행합니다. 관련 비용은 모두 비엔더블유코리아(주)에서 부담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자체 시정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의거 결함 사실 공개일 이전 1년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결함을 시정한 고객님 또는 리콜 실시 이후에 결함을 시정한 고객님은 전국 공식 딜러 서비스 센터에서 보상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보상 관련 문의 커뮤니케이션 센터 080-700-8000

이번 리콜로 인해 고객님께 어려움으로 불편을 끼쳐드린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모두 비엔더블유코리아(주)에서 부담합니다. 고객님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BMW 커뮤니케이션 센터 080-700-8000

BMW 공식 딜러 서비스 센터 ■서울 [강북] 02-3444-7301 [강서] 02-2661-7401 [구로] 02-2039-7301 [교대] 02-586-3331 [대치] 02-569-7401 [동대문] 02-2244-7601 [방배] 02-3477-7401 [서초중앙] 02-466-7301 [성산] 02-375-7301 [성수] 02-2170-7100 [송파] 02-415-7601 [양재] 02-575-7602 ■경기 [구리] 031-567-7601 [군포] 031-8068-8501 [미사] 031-794-7607 [부천] 032-676-7301 [분당 공내] 031-8016-7301 [수원] 031-206-7501 [성남] 031-721-7601 [안산] 031-8068-8401 [안양] 031-8068-7601 [오트월드] 031-5173-7100 [동탄] 031-8068-7501 [오포] 031-726-7301 [의정부] 031-874-7301 [일산] 031-966-7501 [자유로] 031-994-7401 [평택] 031-656-7501 [인천] 032-881-7401 [인천 계양] 032-721-7301 [송도] 032-710-7401 ■충청 [세종] 044-410-3201 [청주] 043-236-7501 [서산] 041-664-7501 [천안] 041-572-7401 [관동] 042-721-7301 [대전] 042-633-7301 [대전 유성] 042-826-7201 ■경상 [구미] 054-464-7301 [김해] 055-322-7301 [대구] 053-559-7301 [서대구 중앙] 053-655-7301 부산 [광안리] 051-327-7301 [서면] 051-819-7301 [해운대] 051-731-7303 [사상] 051-712-7309 [금정] 051-712-7303 [창원] 055-256-7301 [진주] 055-744-7301 [울산] 052-268-7306 [포항] 054-272-7306 ■전라 [전주] 063-211-0505 [광주] 062-675-7301 [광주 평동] 062-383-7301 [목포] 061-287-7501 [군산] 063-451-7501 [순천] 061-745-7301 ■강원 [강릉] 033-808-7301 [원주] 033-734-7301 ■제주 [제주] 064-757-7601

BMW 공식 딜러 패스트레인 서비스 센터 ■서울 [강동] 02-488-8766 [도곡] 02-575-7601 [서초] 02-521-7301 [역삼] 02-562-7301 [영등포 롯데백화점] 02-6956-7401 [시흥 홈플러스] 02-808-7401 ■경기 [분양] 031-711-7401 [BMW 드라이빙 센터] 032-422-7301 ■경상 [대구 수성] 053-768-7301 [서대구] 053-653-7301 [부산 롯데] 051-792-1810 [울산 진장 롯데] 052-702-8361 ■전라 [광주 상무] 062-384-7301 [광주 광천] 062-367-7301



“수출 살리자”... 주력산업에 23兆 추가 수혈한다

금융위 ‘수출금융 지원방안’

정부·시중은행 총력 지원 ‘맞손’ 총 64조로 확대... “경쟁력 강화” 은행권 5.4조 우대상품 공급 김주현 “미래성장 기반 확보 도움”



김주현(오른쪽 두 번째)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과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23조 원 규모의 추가 금융지원에 나선다. 민간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수출기업을 위한 별도의 우대상품을 개발해 총 5조3600억 원을 공급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의 후속 조치다. 국내 수출 시장이 10개월째 마이너스를 지속하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자 추가 지원안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우리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수출 금융 규모 41조원에 추가로 23조 원을 지원한다. 정책방향으로는 △신수출 판로 개척 지원 4조1000억 원+α △수출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8조 6000억 원 △우수 수출기업 애로 해소(무역금융 지원) 등이 담겼다.

해외 신시장 진출을 추진하거나 대기업과 동반해 해외 진출하는 수출기업에 대한

특화상품을 4조1000억 원 이상 집중 지원한다. 은행권과 보증기관이 협력해 금리를 최대 1.5%포인트(p)인하한다.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민간 금융사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패키지 금융 모델’도 구축한다.

수출전략산업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 출처: 금융위

3대 정책 방향	① 新수출 판로 개척 지원 (4.1조원+α)	② 수출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8.7조원)	③ 우수 수출기업애로 해소 (무역금융 지원)
10대 과제	① 신규수출국진출 지원(3.3조원) ② 해외 수주 금융지원(0.3조원+α) ③ 공급망대응펀드 조성(0.5조원)	① 초격차주력산업 지원(11조원) ② 전략품목 수출기업 지원(1.3조원) ③ 수출기업 설비투자 특별 지원 (1조원) ④ 은행 수출기업 우대상품 신설(5.4조원)	① 수출환어음 비용 감감 및 이용 지원 ② 수입신용장 그리·만기 우대 ③ 수수료 인하 등 선물환 이용 지원

도 마련했다. 20대 수출 전략분야에 대해 올해 41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정책금융기관별로 수출기업 전용상품을 도입, 총 13조3000억 원을 추가 공급한다.

특히 민간인 5대 시중은행이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들 은행은 보증기관에 특별출연하거나 자체 여력을 활용해 수출기업에 대한 별도의 우대상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별 우대상품 규모는 △하나은행 1조 5000억 원 △우리은행 1조 5000억 원 △KB국민은행 8600억 원 △신한은행 9000억 원 △NH농협은행 6000억 원 등 총 5조 3600억 원이다. 이들 은행은 수출기업 우대상품을 모두 100% 완전 보증 상품으로 구성했다. 대출 금리와 보증료도 각각 최대 1.5%p, 0.8%p까지 우대한다.

약 2500여 곳의 우수한 수출기업들을 위한 무역금융도 포함됐다. 수출대금 조기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들이 수출환어음을 매입할 때 매입할인율을 최대 1.7%p 인하하고, 중간재 수입 과정에서 필요한 수입신용장 발급수수료를 최대 0.7%p 인하한다. 만기도 최장 1년으로 확대한다. 선물환 계약시 수수료를 최대 90%까지 인하하며 의무 납입금을 면제하는 등 부담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김위원장은 “이번 수출금융 지원도 의미 있는 사회적 기여일 뿐만 아니라 은행 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고객기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중은행들이 수출기업 금융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하영 기자 ha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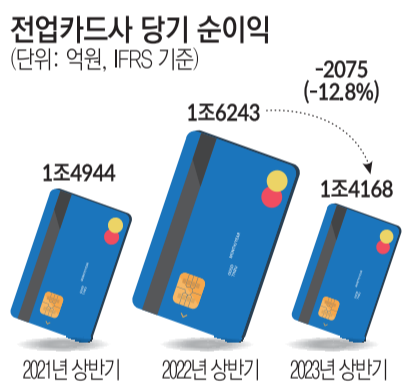
‘서민 급전창구’ 카드 현금서비스 1000억 ‘쑥’

상반기 카드론 3조3000억 감소 카드사 순이익 줄었지만 연체율 ↑ 다중 채무자 등 연체관리 시급

올해 상반기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불리는 현금서비스 이용액이 전년 동기보다 1000억 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서비스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데다 연체율 관리에 나선 저축은행 등에서 신규 대출을 줄이자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이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를 이용하는 차주들은 주로 중·저신용자와 다중 채무자가 대다수라 연체 위험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16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신용카드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이 기간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액은 28조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28조2000억 원)보다 1000억 원 늘었다.

반면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같은 기간 3조3000억 원 감소한 22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카드대출 이용액 총액은 50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9%(3조1000억 원) 줄었다. 다만, 2분기 이용액은 25조7000억 원

로 1분기 25조1000억 원 보다 2.4%(6000억 원) 늘었다.

올해 상반기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은 558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518조 6000억 원)보다 39조9000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 이용액은 35조 4000억 원 증가한 461조4000억 원, 체크카드는 4조5000억 원 증가한 97조 1000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6월 말 기준 카드사 연체율(총채권 기준)은 1.58%로 전년 말(1.20%) 대비 0.38%포인트(p) 상승했다. 신용판 매 연체율은 같은 기간 0.22%p 오른 0.87%로, 카드대출 연체율은 0.69%p 상승한 3.67%로 나타났다. 현금서비스 금리는 법정최고금리(연 20%) 수준에 근접해 있어 이용금액 증가에 따른 연체 위험 역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반기 중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06.4%로 전년말(106.7%)과 유사한 수준이며 모든 카드사가 100%를 상회했다. 레버리지배율은 5.4배로 전년말(5.6배) 보다 0.2배 하락했다.

상반기 중 전업카드사의 순이익(IFRS 기준)은 1조4168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6243억 원) 대비 2075억 원(12.8%) 감소했다. 상반기 중 대손준비금 적립 후 당기순이익(감독규정 기준)은 2조59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3695억 원) 대비 6364억 원 늘었다.

김위원은 “올 하반기 중 대·내외 경제·금융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임을 고려해 카드사들이 부실채권 매각, 채무 재조정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재 발행시장 및 카드사 유동성 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범근 기자 nova@



“국유재산 사면 대출 지원” 캠프·부산銀, 상생 금융상품 출시

캠코는 부산은행과 함께 개발한 상생 금융상품 ‘국유재산과 국민을 이음’을 출시(사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캠코와 부산은행이 지난 5월 체결한 국유재산 이용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국유재산을 이용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상생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매수인이다. 소상공인 및 창업기업, 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배려계층에는 최대 0.2~0.3%까지 우대금리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부산은행 전국 각 지점 또는 부산은행 고객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코픽스 0.01%p 소폭 하락... 한숨 돌린 주담대 금리

7월 신규취급액 기준 3.69%

예금금리 하락 영향 ‘사실상 보합’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전세대출 금리가 17일부터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지수(COFIX·코픽스)가 6월보다 0.01%포인트(p) 하락하면서다. 그간 오르던 은행 예금금리가 지난달 소폭 내림세를 보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1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69%로, 전월(3.70%)보다 0.01%포인트(p) 내려갔다. 앞서 5월 기준 신규 코픽스가 상승 전환하고 6월까지 두 달 연속 상승한 이

후 소폭 하락한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사실상 보합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코픽스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SC제일·한국씨티은행 등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오르면 그만큼 은행이 자금을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이 커진다는 뜻이다. 반대로 코픽스가 내려가면 은행이 자금 확보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을 의미한다.

KB국민·우리·NH농협은행 등 코픽스 변동분을 직접 대출금리에 반영하는 은행들은 17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날 발표된 코픽스 금리를 적용한다.

KB국민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

대 변동금리는 연 4.33~5.73%에서 연 4.32~5.72%로 코픽스 하락폭(0.01%p)만큼 내릴 예정이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연 4.00~5.40%에서 3.99~5.39%로 낮아진다. 우리은행 주담대 변동 금리는 연 4.47~5.67%에서 4.46~5.66%, 농협은행은 연 4.08~5.89%에서 연 4.05~5.86%로 각각 낮아진다.

코픽스가 소폭 하락세를 보인 건 은행의 예금금리가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최고금리는 3.50~3.85%로, 지난달 연 3.50~3.90%보다 상단이 0.05%p 하락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코픽스에서 70~80%

에 달하는 예금금리가 소폭 내렸다”며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단계적 정상화에 대응하던 은행들의 조달 경쟁이 완화된 영향으로 금리가 하락하면서 소폭 내려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어 이번 0.01%p 하락은 ‘숨 고르는 단계’라는 시각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코픽스 하락은) 사실상 보합수준이고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채(무보증·AAA) 6개월물 금리는 이달 14일 기준 3.774%로, 5월 초(3.575%)와 비교하면 0.199%p 올랐다. 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은행채 금리 평균 역시 이달 14일 기준 4.354%로, 5월 초(3.961%) 대비 0.393%p 올랐다. 유하영 기자 haha@

“월리·미니언즈와 여름을” 신한카드, 체크카드 2종 내놔

신한카드는 ‘월리를 찾아라’의 주인공 ‘월리’ 캐릭터 디자인을 적용한 ‘신한카드 글로벌+ 체크 월리를 찾아라(이하 신한 글로벌플러스서 체크 월리)’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카드는 ‘신한카드 글로벌플러스 체크’를 기반으로 월리를 활용해 디자인됐다. 전 세계를 여행하는 월리로 이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부각한 것이다.

‘신한카드 웨이(Way)체크 미니언즈 여름(이하 신한 웨이체크 미니언즈 여름)’도 선보였다. 정성원 기자 jsw@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 파트너

World EXPO 2030 BUSAN, KOREA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KB국민은행이 함께 응원합니다

환전에 혜택을 꼭 채웠다

KB스타뱅킹에서 만나는 KB외화머니박스

환율 낮을 때 모아두고 여행갈 때 바로 찾고
환율 우대는 최대 90%까지!
이런 게 KB국민은행의 새로운 환전혜택!



KB외화머니박스 바로가기

KB외화머니박스

KB외화머니박스는 KB스타뱅킹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환전 서비스입니다

1 최대 90% 환율 우대

놀라운 환율 혜택은 기본, 원하는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수령까지!

2 자유로운 보관과 출금

수령점 및 수령일 지정없이 보관, 출금, 되팔기, 선물을 자유롭게!

3 편리한 외화 배달 서비스

환전한 외화실물도 택배처럼 원하는 장소에서 수령을 편하게!

• 외화 실물 수령 희망 영업점별로 보유 권종이 다를 수 있으니, 필요한 권종(소액권 등)이 있으신 경우에는 영업점에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완료된 환전 거래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환전 신청한 금액은 원화로 직접 되팔기 할 수 있으며, 거래 시점의 현찰 파실 때 환율(환전 신청시 적용한 환율우대를 적용)이 적용됩니다. • 환전 후 미수령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 외화는 예금자보호법 및 이자지급의 대상이 아닙니다. • 미 달러(USD)를 제외한 기타 통화를 외화 입출금 계좌에 입금 후 영업점에 방문하여 외화 현금을 출금할 경우 외화현금보관수수료(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합니다. (JPY, EUR:1.5%/그외 통화 3%) • KB외화머니박스 환전신청은 24시간(토, 일, 공휴일 포함)가능하나, 온라인 영업일자 전환시간(매일 00:00~00:05) 및 매월 셋째주 일요일 00:00~07:00은 시스템 조정 작업으로 인해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KB국민은행 고객센터 (☎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달 열리는 300兆 조각투자 시장... '주도권 경쟁' 치열

제도권 편입으로 막이 열린 조각투자 시장에서 선두 경쟁을 두고 업체들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한우·미술품 조각투자 업체에 대해 최종 제재면제 판정을 내리면서 상품 출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각투자는 다수의 투자자가 실물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하고 이를 거래하는 투자 형태를 말한다.

이르면 9월부터 미술품, 한우, 음악 수익증권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한 조각투자 상품들이 출시될 전망이다. 각 업체들은 신규 상품 출시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둔 증권신고서를 속속 제출할 계획이다.

◇테사, 키움증권 계좌 연동...증권신고서 1호수리 목표 = 16일 조각투자업계에 따르면 블루칩 아트테크 플랫폼 테사는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1호 수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테사는 신규 고객 유치와 거래 활성화 등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키움증권과 고객실명거래 계좌연동서비스를 도입키로 했다. 테사 앱 내 '자산' 메뉴에서는 본인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를 연결 및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향후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제1호 상품이 출시될 경우 고객은 미리 입금된 예치금을 통해 빠른 청약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조각투자 상품 출시 준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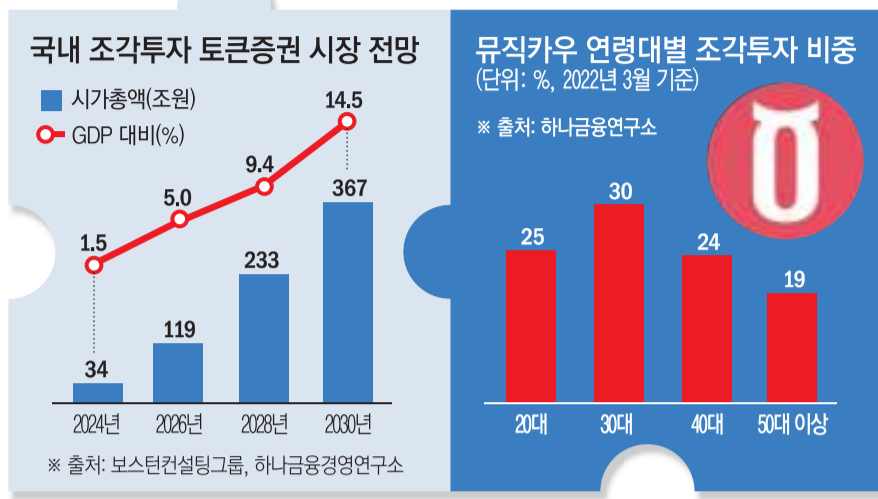
테사, 증권신고서 첫 수리 목표
키움증권 계좌 연동서비스 도입

뮤직카우 내달 서비스 재개하고
카사 1년만에 공모 건물 선보여

증권사들 STO 선점 경쟁 나서
플랫폼 구축·올인원 서비스 등

이로서 테사는 투자계약증권 1호 상품 출시 및 토큰증권발행(STO) 시장 개척에 나선다는 목표다. 테사는 지난해 7월 키움증권과 '조각투자 사업 상호 협력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미술품 공동 구매 플랫폼 투게더아트는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에 최초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투게더아트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7억9000만 원을 조달해 스탠리 휘트니(Stanley Whitney)의 작품 'Stay Song 61'을 취득·관리 중이다. 향후 기초자산을 최대 10년 이내 처분해 투자자에게 청산 손익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투자계약증권 판정을 받은 한우·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5곳에 대해 최종 제재 면제판정을 내렸다.

아울러 이달부터 조각투자업체에 대해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을 허용했다. 일반 투자자들이 증권사 계좌와 연동된 조각투자 앱을 통해 조각투자를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조각투자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첫 설명회를 열고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개정 서식과 향후 심사 방안 등을 공유했다.

◇뮤직카우, 9월 서비스 재개... '최초 음악수익증권 발행' = 조각투자 제도권 진입의 신호탄을 쏜 음악 조각투자 플

랫폼 뮤직카우도 내달부터 서비스 재개에 나선다. 뮤직카우는 지난해 9월 혁신금융 서비스에 지정된 후 투자자보호와 관련한 이행 조건을 갖추는 데 전념해왔다. 특히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형태로 발행되던 상품을 '음악 수익증권'으로 전환하며 저작권법과 자본시장법을 준수한 제도권 편입을 본격화했다.

특히 △금융회사 신탁을 통한 자산 보호 △고객별 증권 계좌(키움증권) 개설을 통한 예치금 보호 △전자등록 발행에 따른 안정성 강화 △실시간 입출금에 따른 편의성 강화 등의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뮤직카우는 키움증권 및 하나은행을 통

해 신탁 단계를 완료했고, 전자등록 전사 전심사를 위한 마무리 작업에 나섰다. 지난 1일에는 음악 수익증권으로 발행할 수 없는 미전환 곡에 대해 환매 보상 정책을 발표할 바 있다.

부동산 조각투자업체 카사는 1년여 만에 공모 건물을 선보였다. 다음달 총 167억 원 규모의 '압구정 커머스 빌딩'에 대한 공모를 시작한다. 지난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카사는 합법적인 조각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며 6개의 건물을 상장한 경험이 있다.

증권사들의 STO 시장 선점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하나증권은 이달 외부업체를 선정하고 내달부터 토큰증권 사업모델 플랫폼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대신증권은 계열사 카사의 공모 공개와 더불어 STO를 위한 별도 계좌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은 조각투자 사업자 지원을 위한 투자계약증권 올인원 서비스를 출시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조각투자는 MZ세대가 선호하는 특징을 보유해 향후에도 투자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조각투자의 제도권 편입으로 국내외 연기금, 기관 투자자 등 신규 투자자가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정성욱 기자 sajikoku@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우중수 국가수사본부장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원 국가수사본부 업무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시스

금감원-국수본 '자본시장 불법행위 척결' 맞손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MOU

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가 16일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과 우중수 국수본부장이 참석한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양 기관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 척결을 위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국수본은 △피해 예방 홍보 △정보공유 △공동단속 △수사·조사역량 강화 지원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관련 기존 MOU의 충실한 이행 등 5개 항목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금감원과 국수본은 불법리딩방 등 관련 공동 피해예방 활동을 시행하고, 투자사기, 불법영업행위 및 금융회사 임직원 횡령, 불공정 거래, 상장사 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불법행위 관련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 투자설명회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공동 수사·조사 및 협업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수사관 자본시장 전문성 지원을 위해 금감원은 연수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금감원 감사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며, 국수본은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수사 등에 필요한 수사기법 전수와 관련 인프라를 지원한다.

금감원과 국수본은 이번 업무협약을 자본시장 불법행위 관련 범죄 척결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한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금감원의 전문성·조사능력과 경찰의 정보수집·수사역량 등 기관의 장점이 유기적으로 융합돼 리딩방 불법 영업행위, 불공정 거래, 사익추구, 회계부정 등에 각 기관이 조사·수사·검사에서 진일보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금감원과 국수본은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자본시장 관련 피해예방-단속-처벌 등 전 단계에 걸쳐 양 기관의 상호 공조와 협력을 공고히 해 범죄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박민규 기자 pmk898@

3분기 'AA 이상' 우량 공모채 쏟아진다

롯데케미칼·현대건설 등 대기 통화긴축 우려에 우량채 출격

공모채 시장이 여름 비수기를 마치고 수요예측을 재개한다. 미국 발 신용등급 강등 이후 통화 긴축 장기화 우려가 고개를 들자 AA 이상 우량 등급 위주로 먼저 신호탄을 알리는 모습이다.

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AA-)은 17일 증권신고서를 제출 후 21일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2년 만기 300억 원, 3년 만기 800억 원, 5년 만기 400억 원으로 총 2000억 원 규모다.

최근 크레딧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 단기물 선호가 지속하자 단기물 우위 발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부실채권(NPL) 전문기업 연합자산관리(유앰코, AA0)도 같은 날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연합자산관리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NPL 시장이 활기를 띠는 가운데 AA 우량등급으로 시장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3분기 공모채 시장을 찾는 발행사는 AA급 이상 기업이 대다수다. 경기침체는 짙어졌지만, 연초 효과는 열어진 하반기 시장에서 우량 신용도를 내세워 자금을 끌어모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달 29일에는 롯데케미칼(AA0), 현대건설(AA-)이 수요예측에 나서 각각 2500억 원, 2000억 원을 모집한다. 롯데케미칼은 최대 5000억 원까지 증액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초우량 등급을 보유한 KT&G(AAA)도 다음 달 5일 수요예측에 뛰어들다. KT&G는 2년물 1000억 원, 3년물 2000억 원으로 총 4000억 원까지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다음 달까지 회사채 시장 문을 두드리는 우량 기업은 우리금융지주(AA-), 대신증권(AA-) 등이다.

A등급 이하 비우량 크레딧도 간간이 수요예측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달 17일에는 동원F&B(A+), 22일 이랜드월드(BBB0), 31일 현대로템(A-)의 수요예측이 예정돼 있다. 같은 A급 내에서도 플러스(+) 노치를 보유한 동원F&B와 견조한 방산 산업을 등에 업은 현대로템은 무난히 금리 밴드를 결정할 전망이다. 다만 BBB등급의 이랜드월드는 미매각 물량 발생을 염두에 두고 산업은행을 인수단에 선정했다.

다음 달에는 DN오토모티브(A-), 삼척블루파워(A+)가 각각 1일과 7일에 수요예측에 나설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3분기 회사채 시장 분위기를 연초만큼 강하게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가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한 데 이어 생산자물가지수(PPI), 7월 소매판매지표가 긴축 우려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희인 기자 hihello@

미래에셋운용, 호주 1위 로보어드바이저 운용사 인수

스타스팟 지분 53% 240억원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호주 로보어드바이저 전문 운용사인 'Stockspot(스타스팟)'을 인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내 금융그룹의 해외 로보어드바이저 전문 운용사 인수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수 가격은 약 2800만 호주달러(약 240억 원) 규모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스타스팟의 지분 53%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잔여 지분은 정해진 기간 내 옵션 계약 구조에 따라 추가 인수할 계획이다.

2013년 호주 시드니에 설립된 스타스팟은 6월 기준 운용자산 약 6억 5000만 호주달러(약 5700억 원)의 호주 1위 로보어드바이저 전문 운용사다. 자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투자자문, 포트폴리오 관리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트랙레코드로 1만 3000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번 인수를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를 접목한 금융시장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다.

또한 스타스팟과 시너지를 발휘해 호주

연금시장 진출도 본격화한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글로벌전략가(GSO) 회장은 "이번 인수를 계기로 호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래의 성장동력인 AI 및 로보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라며 "미래에셋의 해외 시장과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진출은 항상 고객 관점에서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었으며 로보어드바이저를 또 하나의 성장동력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예슬 기자 viajeporlune@

7년마다 신차? 통념 깨고 글로벌 브랜드 된 현대차



세대별 아반떼
2세대
아반떼RD
1995년



3세대
아반떼XD
2000년



4세대
아반떼HD
2005년



5세대
아반떼MD
2010년



6세대
아반떼AD
2015년



7세대
아반떼CN7
2020년



김준형의
오토인사이드

“우리차는 5년 동안 약 3000억 원의 개발비를 투입해...”

1990년대말. 현대차와대우차, 기아산업이 자동차 시장에서 3파전을 이뤘다. 각각 30%대 점유율을 나눠갖던 시절이었다. 당시 신차 발표회에는 넥타이를 맨 경영진들이 앞에 나섰다. 그들은 하나같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개발비 투입”을 강조하고는 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이런 개발비 멘트는 사라졌다. 우리 자동차 산업에도 ‘플랫폼 공유’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나의 플랫폼으로 여러 차를 내놓다 보니 개발비를 얼마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

◇주요 제조사 7년마다 새 모델 투입 = 자동차 회사는 일정 주기에 따라 풀 모델 체인지, 이른바 ‘세대 변경’ 모델을 출시한다. 신차 개발 때는 초기부터 시장을 조사하고 수요를 예측한다. 이를 통해 연간 생산량과 가격 범위 등을 결정한다. 계산기를 두들겼을 때 가장 유리한 주기가 7년 이었던 셈이다.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와 일본 토요타 등도 7년마다 새 모델을 내놓는다. 이때마다 차의 걸모습은 물론 엔진과 서스펜션, 파워트레인까지 대대적으로 손본다. 7년 주기의 중간 기점에서는 앞뒤 디자인을 소폭 바꾸는 ‘마이너 체인지’를 단행한다. 1세대와 2세대 사이에 자리 잡은 1.5세대인 셈이다. 기본 차체는 같되 새로운 디자인을 덧대는 형태다. 한때 메르세데스-벤츠는 마이너 체인지 모델에게 ‘뉴 제너레이션’이라는 서브네임을 붙이기도 했다.

◇페이스리프트도 화끈하게 = 7년이었던 세대 변경 주기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한 이유는 경쟁 심화다. 북미 시장을 중심

독일·일본차는 7년 주기 일반적
현대차 주력모델 5년마다 교체

작수 세대 ‘성능 개선’ 집중하고
홀수 세대는 ‘디자인 혁신’ 초점

팬데믹 기간 신차 쏟아내 실적 ↑

으로 새 브랜드가 속속 등장하며 경쟁했기 때문이다. 세대 변경 때 새로운 기술과 편의 장비를 속속 도입하면 자동차의 제품 경쟁력은 상승하기 마련이다.

2010년대 이후 현대차그룹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짧은 세대 교체 주기도 주요했다.

1세대와 2세대 사이에 자리잡은 1.5세대 즉 마이너체인지는 부르는 이름과 개념도 달라졌다. ‘마이너’라는 부정적 의미를 걸어내기 위해서다. 이를 대신해 긍정적 의미를 담은 ‘페이스리프트’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전체 세대 변경 주기가 짧아진 것은 물론, 중간 기점에 단행하는 페이스리프트 역시 변화의 폭을 확대했다. 앞뒤 모습을 화끈하게 바꾸면서 신차 효과를 누리기도 시작한 것. 파워트레인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인테리어 역시 이전과 다를 게 없지만 바뀐 디자인 효과가 컸다.

◇세대변경도 때에 따라 다르다 = 현대차는 2010년대 들어 독일 폭스바겐의 제품 전략을 추종했다. 이 무렵 독일 폭스바겐과 일본 토요타, 미국 GM은 글로벌 시장에서 각각 1000만 대를 넘게 판매하며 톱3 체제를 굳혔다. 전체 9000만 대 시장에서 35% 수준이었다.

현대차는 빠르게 글로벌 1등인 폭스바겐을 뒤쫓았다. 현대차 이름 앞에 ‘패스트 팔로워(빠른 추격자)’라는 수식이 뒤따르기 시작한 것도 이때였다.

폭스바겐이 직분사방식의 FSI 엔진을 개발하자 현대차도 곧이어 직분사방식의

GD이 엔진을 내놨다.

2개의 클러치를 바탕으로 개발한 자동형 수동변속기 역시 폭스바겐이 DSG를 내놓았고, 뒤이어 현대차도 같은 방식의 DCT를 개발해 선보였다. 1세대 벨로스터 역시 폭스바겐의 시로코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왔다.

폭스바겐의 세대 변경 전략도 남달랐다. 먼저 1, 3, 5, 7세대 등 홀수 세대에서는 걸모습을 화끈하게 바꾼다. 이때 엔진과 변속기는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

반대로 2, 4, 6세대 등 짝수 세대에서는 디자인 변화 대신 엔진과 변속기를 포함한 파워트레인을 크게 개선했다. 세대 교체 때마다 변화의 초점을 바꾸면서 개발비 부담을 덜어내는 방식이다.

◇현대차를 구한 ‘신차 슈퍼 사이클’ = 현대차도 유사한 맥락을 따랐다. 5세대 아반떼MD와 6세대 아반떼AD는 걸모습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반면 6세대 아반떼와 가장 최근에 등장한 7세대 아반떼(CN7)는 같은 아반떼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디자인과 차 크기가 달라졌다. 아반떼와 쏘나타가 5~6년마다 새 모델을 내놓고 있지만, 중형 SUV는 싼타페는 7년 주기를 이어왔다. 대형 세단 에쿠스는 10년마다 세대 변경 모델이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주요 제품마다 새 모델 출시 기회가 각각 시장에 따라 다른 셈이다.

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계는 침체에 빠졌다. 문 닫은 공장이 속출했고 소비 심리도 얼어붙었다. 반면 현대차와 기아는 이 기간에 약진했다. 이른바 ‘슈퍼 신차 사이클’ 효과였다. 현대차는 2020년과 2021년, 뒤이어 기아는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주력 신차를 쏟아냈다. 공교롭게도 코로나19 팬데믹과 현대차·기아의 대대적 신차 출시 시점이 맞아 떨어진 것. 2000년대 세 번째 맞은 신차 슈퍼 사이클이었다. 이 기간 신차를 원 없이 쏟아낸 현대차는 엔데믹과 함께 글로벌 톱3 수준으로 올라섰다. junior@

인기 잠잠해진 쏘나타 ‘풀체인지 5년 → 8년’ 고무줄처럼 늘어난다

1985년 ‘스텔라 고급 버전’ 첫선 SUV 인기로 중형세단 침체 맞아 8세대 모델 4년만에 페이스리프트

현대자동차가 중형 세단 제품 전략을 수정했다. 5년이던 풀 체인지(세대 변경) 주기를 7년 또는 그 이상으로 확대했다. 5년 마다 신차를 내놓지 않아도 될 만큼 시장이 작아졌기 때문이다.

현대차를 대표하는 중형 세단 쏘나타는 1985년 등장한 스텔라가 밑그림이다. 첫 고유 모델 포니에 이어 등장한 스텔라는 큰 덩치에 비해 엔진(1.4~1.6l)은 작았다.

1세대 쏘나타는 스텔라 고급 버전으로 등장했다. 차 안팎에 번쩍이는 크롬 장식과 최고 편의 사양을 추가했다. 출력이 모자랐던 엔진은 배기량을 1.8~2.0l로 키우며 해결했다. 일본 미쓰비시에서 들여온 라이선스 엔진이었다.

애초 현대차는 스텔라 후속을 두 가지로 준비했다. 먼저 북미 현지 생산까지 겨냥한 중형 세단 Y카, 동시에 준중형차 J카도 개발했다. Y카는 쏘나타로, J카는 아반떼(당시 엘란트라)로 거듭났다.

이때부터 현대차는 준중형차(아반떼)와 중형차(쏘나타) 세대 교체 주기를 5~6년으로 확정했다.

1990년에 1세대 엘란트라가 등장했고 이후 2세대(1995년 아반떼)→3세대(2000년 아반떼XD)→4세대(2005년 아반떼HD)→5세대(2010년 아반떼MD)→6세대(2015년 아반떼AD)를 거쳐 2020년 아반떼 CN7이 등장했다. 코드네임 CN7은 ‘C세그먼트 노치백(세단형) 7세대’를 의미한다.

같은 맥락에서 쏘나타 역시 5년 안팎의 세대 교체 주기를 유지했다.

그러나 2019년 등장한 8세대 쏘나타부터 사정이 달라졌다. 5~6년마다 단행했던 세대 교체 주기를 7년 또는 그 이상

으로 확대했다.

제품 교체 주기의 중간 기점, 즉 2021년 하반기에 이미 나왔어야 할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모델을 올해(2023년) 3월 선보였다.

부분 변경 모델이 4년 만에 등장했다는 것은 앞으로 4년 뒤에 9세대가 출시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유는 수요 위축이다. 차 산업의 중심이 세단에서 SUV로 옮겨가면서 중형 세단 시장이 위축됐다. 내수는 물론 북미 시장도 마찬가지다. 일본 토요타가 캡티 내수 판매를 중단한 것도, 한때 쏘나타 단종설이 나돌았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자동차업계 일각에서는 내연기관 일부 모델은 세대 변경 대신 부분 변경을 반복하며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해당 세그먼트는 사라져도, 쏘나타라는 이름은 지속할 것으로 관측된다.



1세대 쏘나타(위)와 8세대 부분변경 모델 ‘디엡지’.

사진제공 광고연구원·현대차

약 40년을 이어온 현대차 고유의 브랜드인 만큼,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바탕으로 등장할 새 모델에 쏘나타라는 이름이 부여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포드

의 2도어 스포츠카 ‘머스탱’이 마하E라는 이름을 덧대 SUV 전기차로 등장한 것도 비슷한 전략 가운데 하나다.

김준형 기자 junior@

‘수제버거 전쟁’ 뜨거운 강남... 재벌家도 뛰어든 이유는

SPC 웨이크벡·bhc 슈퍼두퍼에 한화그룹 파이브가이즈도 가세

대중버거 시장만 활성화했을 뿐 프리미엄 시장 성장 가치는 충분 재롯값·임대료에 수익성은 의문

서울서초구강남대로에서 이른바 미국 3대 버거인 ‘파이브가이즈’, ‘웨이크벡’ 등 프리미엄 버거 전쟁이 한창이다. 파이브가이즈의 경우 6월 문을 연 후 연일 오픈런(매장 운영 시작 전부터 줄을 서는 것)이 이어지면서 돌풍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버거 시장은 포화지만, 전체 시장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프리미엄을 표방한 수제버거가 틈새 시장을 파고 들고 있다.

식품업계계별인 SPC 그룹과 한화그룹이 양강 구도를 벌이는 데 이어 치킨 대형 프랜차이즈기업 bhc도 버거 전쟁에 참전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에프지코리아가 운영하는 파이브가이즈는 6월 26일 강남대로에 첫 매장을 연 뒤 순항 중이다. 에프지코리아는 한화갤러리아 자회사다. 파이브가이즈는 한화그룹 3세인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전략본부장이 직접 들여왔다. 파이브가이즈의 버거는 매장 오픈

후 일주일 만에 누적 1만5000개, 하루 평균 2000개씩 팔렸다.

강남대로에는 파이브가이즈 외에 SPC 프리미엄 버거 브랜드 웨이크벡과 bhc 그룹 ‘슈퍼두퍼’도 있다. 웨이크벡의 경우 2016년 7월 강남대로에 첫 매장을 연 뒤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SPC에 따르면 웨이크벡 버거는 오픈 초기 하루 평균 3000개가량이 팔려나갔다. SPC 관계자는 “매장당 판매량은 초기에 비해 다소 줄긴 했지만 매장 수가 늘어나면서 브랜드 전체적으로 성장세는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슈퍼두퍼 또한 성적이 나쁘지 않다. bhc 그룹에 따르면 대표 메뉴인 슈퍼싱글

버거, 슈퍼 더블 버거, 트리플버거, 베이컨 에그 온 버거 4종은 누적 22만 개 판매를 돌파했다. 지난해 11월 개점 이후 약 9개월 만에 낸 성과다. 강남대로를 비롯해 서울 홍대와 삼성동 코엑스도 매장이 있는데 1개 매장당 하루 평균 버거 1000개가량이 팔리고 있다.

유통·외식업체들이 프리미엄 버거 시장에 줄줄이 진입하는 것은 국내 버거 시장이 더 성장할 것이라 기대에서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버거 시장은 2020년 2조9600억 원에서 지난해 4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에는 5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다. 시장이 이미 포화이나, 국내 버거 업

계는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등 대중 버거 시장만 활성화했을 뿐 프리미엄 시장의 가능성은 크다고 본다.

실제 대중 버거 브랜드인 버거킹이 선보인 프리미엄 ‘버거 콰트로 맥시멈 미트 포커스드 어메이징 얼티밋 그릴드 파티 오브 더 비기스트 포 슈퍼 미트 프릭’ 2종은 출시 첫 주, 예상 판매량의 150%를 돌파했다.

다만 프리미엄 버거는 고급 원재료를 쓰고 임대료가 비싼 주요 상권에 있어 성장세에 비해 큰 수익률은 미지수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규모의 경제 문제로, 최근 화제성에 비해 수익성 확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kij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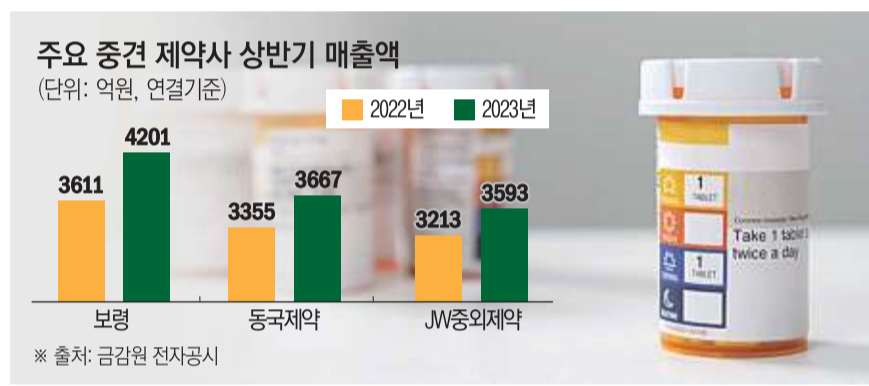
업계 ‘허리’ 중견 제약사들... 상반기 거침없는 성장

보령제약, 첫 매출 4000억 돌파 JW중외, 영업이익 전년비 80%↑ 동국제약도 연매출 7000억 육박

국내 제약업계 터줏대감들이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대형 제약사로의 성장을 가시화하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보령제약, JW중외제약, 동국제약 등 중견 제약사들이 연결기준 상반기 매출액 기록을 경신했다. 오리지널 제약품에 기반을 둔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를 이어가며 올해 연매출도 사상 최고치를 찍을 전망이다.

보령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상반기 매출 4000억 원을 돌파했다. 매출액은 4201억 원, 영업이익은 350억 원으로 나란히 두 자릿수 증가에 성공했다. 지난해 연매출 6000억 원대를 건너뛰고 7000억 원대에 진입한 보령은 중견 제약사 중 가



장 빠른 속도로 몸집을 불리고 있다. 올해는 연초 제시한 매출 목표치 8100억 원을 가볍게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간판 제품인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 패밀리’와 더불어 항암질환군 부문의 성장이 최대 실적을 이끌었다. 상반기에만 1061억 원의 매출을 올려 지난해 상반기 보다 48% 증가했다. ‘젠자’, ‘알립타’ 등 오리지널 브랜드 인수(LBA) 제품에 더해 바이오시밀러 ‘온베브지’가 2분기 매출 100억 원을 넘기며 블록버스터 품목으

로 자리매김하는 등 해당 부문 강화 전략 이 빛을 발하고 있던 평가다.

보령은 중장기 비전인 ‘2026년 연매출 1조 원’ 조기 도달을 목표로 전략 품목 육성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JW중외제약은 창립 이래 처음으로 연매출 7000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상반기 매출액은 전문의약품(ETC)과 일반 의약품(OTC)이 동반 선전하며 359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8% 늘었다. 영업이익은 409억 원으로 80.0% 큰 폭 성

장했다.

올해 5월부터 비항체 중증 A형 혈우병 환자까지 건강보험급여 확대 적용을 받는 ‘헴리브라’는 JW중외제약의 새로운 캐시카우로 떠올랐다. 2분기에만 214.3% 급증한 44억 원의 판매실적을 달성했고, 중증 A형 혈우병 환자의 90% 이상이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환자란 점에서 가파른 성장이 기대된다.

동국제약도 상반기 매출액 3667억 원으로 연매출 7000억 원 돌파가 유력하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13.4%로, 부침 없는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센텔리안24’가 속한 기타 품목 매출만 959억 원으로 1000억 원에 육박한다.

다만 영업이익은 ‘마데카프라이’ 등 신제품 광고비를 포함한 비용 증가로 주춤했다. 올 상반기 광고선전비는 325억 원으로 전년보다 25.1% 늘었다.

유혜은 기자 euna@

“추석선물, 백화점이 최고” 장기연휴에 프리미엄 각광

롯데·신세계·현대 등 백화점 3사는 대형마트와 차별화된 추석 선물세트를 사전 예약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는 휴가를 쓰면 가장 10일 연휴인 점을 고려, 부모님·친지 방문 대신 해외여행에 나설 고객들의 마음을 대신할 ‘프리미엄 상품’에 집중했다.

롯데백화점은 1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전 점포에서 총 190여개 품목의 추석 선물세트를 최대 60% 할인가에 예약 판매한다. 품목별로 △축산 20~25% △청과 10~35% △수산물 20~30% △건강 10~60% 등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바이어가 직접 한우 농가를 찾아가 기획한 한우 선물 세트에 힘을 썼다. 작년 보다 한 단계 등급을 높인 ‘1+ 등급’ 한우 부위로만 구성된 ‘바이어 추천’ 선물 세트는 ‘로알한우 스테이크 GIFT(40만 원)’, ‘로알한우 혼합 GIFT(29만 원)’ 등이 대표 상품이다.

신세계백화점은 1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총 240여개 품목의 선물세트를 예약 판매한다. 할인율은 한우 5~10%, 과일·굴비 최대 20%, 와인·건강식품 최대 60%다. 특히 수산물 품목 준비에 공들였다. 굴비, 갈치, 옥돔의 경우 겨울부터 봄까지 제철 원물을 미리 수매해 식품안전 검사를 통과한 상품을 엄선했다. 10만 원대 이상 프리미엄 상품도 작년 보다 17% 늘린 130여개다.

현대백화점은 1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추석 선물세트 예약 판매를 한다. 한우·굴비·청과·건강식품 등 인기 세트 약 260여종을 최대 30% 할인해 선보인다. 한우 소포장 선물세트인 현대한우 소담죽(竹) 세트(23만 원)를 21만 원에, 영광 참굴비 죽(竹) 세트(30만 원)를 24만 원에 각각 할인 판매한다. 같은 기간 더현대닷컴·현대식품관 투움 등을 통해 상품 구매 시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석유선 기자 heystone@

GS25 “지켜라” vs CU “잡아라”... 편의점 매출 1위 경쟁 ‘팽팽’

GS25, 점포 출점·차별화상품 집중 CU, 자체 앱 ‘포켓CU’ 마케팅 공세

‘편의점 업계 매출 1위’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는 GS25와 CU의 올해 2분기 매출 격차가 100억 원대로 좁혀졌다. CU는 하반기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매출 1위를 차지하겠다는 목표다. 반면 GS25는 차별화 상품 발굴, 신규 점포 출점으로 CU의 추격을 따돌릴 계획이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GS리테일의 편의점 사업 매출액은 2조919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분기보다 7.1% 증가했다. BGF 리테일의 편의점 사업 실적인 2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한 2조81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2분기 기준 GS25와 CU의 매출 격차는 100억 원이다. 1분기에 양사 매출 격차는 283억 원이었으나, 3개월 만에 100억 원대로 좁혀져 CU가 GS25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양사는 서로 다른 지표를 앞세워 자신들이 ‘편의점 1위’라고 힘을 준다. GS25

는 매출 규모에서 CU보다 앞선다고 주장한다. 반면 CU는 점포수와 수익성에서 GS25보다 우위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각사 IR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CU와 GS25의 점포 수는 각각 1만6789개, 1만6448개로 나타났다. 편의점의 경우 점포수가 많을수록 규모의 경제를 통해 매출을 확대할 수 있어, 업계는 연내 GS25와 CU의 매출 순위가 뒤바뀔 것으로 본다. 매출에서 CU가 GS25를 넘어설 경우 모든 지표에서 1위에 오를 수 있다. GS25와 CU의 매출 격차에 업계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CU는 하반기 가격인하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비롯해 모바일 앱 포켓CU를 통한 고객 유치로 내·외형 성장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물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소비 트렌드에 맞는 마케팅에 나선다. 9월부터 즉석 커피 가격 인하가 대표적이다. CU는 9월 get아이스아메리카노(XL) 가격을 2000원에서 1800원으로 200원 추가 인하한다. 4월 get아이스아메리카노 가격을 100원 낮추자 7월 한 달 매출만 전년 동기 대비 120.3% 급증했다.

또 편의점 점포 매출 증대를 위해 모바



타임스퀘어은 ‘안전요원 벨리곰’

롯데홈쇼핑이 서울 영등포 경방 타임스퀘어에서 진행 중인 ‘벨리 다이브, 비 케어풀(Belly Dive, B-Carepool)’ 전시가 행사 초반부터 많은 사람이 찾아 성황이다. 수영장 안전요원으로 변신한 벨리곰을 콘셉트로, 모자와 호루라기 목걸이를 착용한 10m 높이의 벨리곰 조형물이 특히 인기 만점이다. 역대 벨리곰 실내 전시 중 가장 큰 높이이다. 이번 전시는 27일까지다. 사진제공 롯데홈쇼핑

로 자리매김하는 등 해당 부문 강화 전략 이 빛을 발하고 있던 평가다.

일 앱인 ‘포켓CU’를 적극 활용한다. 포켓CU는 배달 주문, 픽업, 예약 구매, 홈배송을 비롯해 재고 조회, 구독 쿠폰, 택배 예약 기능을 갖추고 있다.

GS25는 차별화 상품 발굴, 신규 점포 출점을 통해 CU의 추격을 따돌릴 방침이다. 올해 2분기 매출 신장을 견인한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 프레스푸드와 가공 식품 상품 구색 확대에 집중한다. 앞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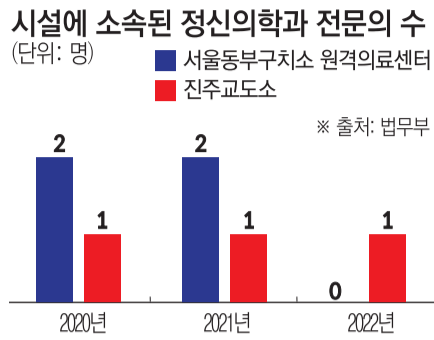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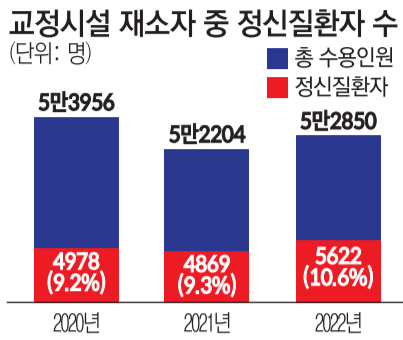
GS25는 고물가 수요를 겨냥해 가성비 높은 ‘김해자 도시락’을 제출시켰다.

넷플릭스 점포 팝콘 등 차별화 상품 론칭에도 힘을 쏟는다. GS25의 ‘넷플릭스 점포팝콘’은 출시 직후 400여 종의 스낵 중 매출 1위에 올랐다. 특대형 PB 스낵이 새우깡, 포카칩 등을 제치고 카테고리 1위에 올라선 것은 처음이다.

유승호 기자 peter@

정신질환 재소자 5000명인데 의사는 1명... “치료 한계”

교정시설 수용자 10명 중 1명꼴 처우 등 문제로 전문의 2명 사임 “원격의료 한계...출소 전 치료를” 법무부 “보수 현실화 인사처 협의”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의료 전문 인력은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어지는 ‘칼부림 사건’ 피의자들이 조현병 등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교정시설에서 치료를 위한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본지가 법무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재소자 중 정신질환자 수는 5000여 명으로 매년 그 비율이 늘고 있다. 2020년 전체 수용인원 5만3956명 중 정신질환자 수가 4978명

이었다. 2021년에는 5만2204명 중 4869명, 지난해에는 5만2850명 중 5622명이다. 비율로 보면 2020년부터 9.2%→9.3%→10.6%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교정시설에 배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같은 기간 3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서울동부구치소 원격의료센터에 2명, 진주교도소에 1명의 전문의를 배치했으나 지난해 서울동부구치소 원격의료센터 전문의의 자리는 전부 공석이 됐다.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는 2021년 1월 수용자의 의료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중심의 수용자 처우 향상 방안’을 발표하 바 있다. 2020년 5월 공황장애와 불면증 등을 앓은 30대 재소자가 주말에 의무관이 없어 약 처방과 진료를 받지 못하다 14시간 넘게 손발이 보호장비에 묶인 채 숨진 사건이 제기됐다.

당시 교정개혁위는 정신과 전문의, 간호사 등 의료보조 인력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수용자의료처우향상과

보호장비 개선을 통해 교정시설 내 인권침해 요소는 낮추고, 교정 교화 기능을 높이지는 취지였다. 3년이 지난 지금 교정개혁위의 권고 방향은 역행한 셈이다.

그간 교정시설 내 전문의 부족현상은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왔다. 낮은 급여와 수감자들과의 잦은 마찰, 각종 민원과 소송 위험 등으로 기피하는 추세다. 이때문에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의사인력보다 외부 의료기관에 의존하고 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정신과 전문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외부 의료진을 연결해 정신질환 수용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수용자가 있으면 교정시설과 협력의료시설간 최첨단 원격의료시스템을 구축해 수용자가 외부의료시설에 가지 않고도 교정시설 내에서 협력 의료시설 정신과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부 진료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정시설 내 의료 환경을 잘 아는 한 법조계 관계자는 “내부 전문의가 줄어든 건 처우 등 문제가 컸을 것”이라며 “외부 진료도 가능하지만, 이 과정에서 호송, 계호 등 과정이 번거롭고 인력 배분 문제도 복잡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신질환 재소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회에 나오면 강력범죄들이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치료를 통해 한 두명이라도 줄여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전문의가 있도록 반드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교정기관 의무관 부족 현상은 민간병원에 비해 낮은 보수, 교정시설의 폐쇄성, 열악한 근무 환경 등 복합적 원인에 기인한다”며 “보수 현실화를 위해 인사혁신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abc123@ 김이현 기자 spes@

서울시 새 브랜드 ‘Seoul, My soul’

오세훈 “서울 매력 알릴 것”

“서울 시민의 마음이 모여서 함께 만든 브랜드인 만큼 서울 대표 브랜드로 제 역할을 든든히 할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의 새 도시브랜드 ‘서울, 마이소울(Seoul, My soul)’을 발표하는 자리를 갖고 “서울은 이미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도시지만, 서울이 가진 매력을 보다 널리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어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새로운 브랜드”라며 “서울하면 바로 떠오르고 전세계인이 사랑하는 역동성과 매력, 도시경쟁력을 고루 갖춘 서울의 지향점을 압축적으로 담은 브랜드를 위해서 오랜 기간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서울의 새 브랜드 ‘서울, 마이소울(Seoul, My soul)’에는 도시

이름인 ‘Seoul(서울)’을 전면에 배치하고, 마음(하트)·경험(느낌표)·즐거움(스마일)을 의미하는 그림문자인 ‘픽토그램’을 통해 주목도를 높였다.

세부적으로 ‘하트’를 통해 서울을 향한 시민들의 애정과 관심인 마음을 표현했고, 감탄을 표현하는 ‘느낌표’는 새로운 경험과 영감을 준다는 의미를 담았다. ‘스마일’은 서울에는 어디나 미소를 짓게 하는 즐거움이 있다는 뜻을 더했다.

아울러 ‘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라는 한글 부제를 추가해 서울의 중심에는 시민이 있고 서울을 향한 다양한 마음이 모여 더 좋은 서울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더했다.

앞으로 시는 향후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개정을 거쳐 새 브랜드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서울시장 홍보에 새 브랜드를 적용해갈 방침이다.

김채빈 기자 chaebi@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장에서 열린 서울 신규 브랜드 ‘SEOUL MY SOUL’ 발표 행사에서 신규 브랜드 발표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수술 뒤 ‘뇌변병 장애’ 손배소... 法, 기각

“의료 과실”... 法 “합병증이 원인

대동맥판막 협착증(aortic stenosis, 대동맥판막이 좁아지는 질환)을 진단받은 뒤 치료 과정에서 뇌변병 장애를 갖게 된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졌다.

1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대동맥판막 협착증이 발병해 치료를 받다가 뇌경색으로 인한 뇌변병 장애로 의식 저하, 사지 마비, 인지 저하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된 환자 A 씨가 삼성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17년 2월 피고(삼성의료재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대동맥판막 협착증 진단을 받았다. 보름 뒤 A 씨는 대동맥판막을 기계판막으로 교체하는 수술 등을 받았다.

수술 뒤 갑자기 A 씨의 혈압이 오르면서 인조혈관과 대동맥 근부를 포함한 지

점에 대량 출혈이 발생했다. 의료진이 인공심폐기(심장 수술을 할 때 심장과 폐의 기능을 대신해주는 기계)를 통한 응급처치를 했지만 지혈이 잘 안 됐고, 결국 A 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이후 A 씨에게 섬망(delirium, 심한 과다행동과 생생한 환각, 초조함과 떨림 등이 자주 나타나는 상태) 증상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뇌 MRI 검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A 씨에게 급성 뇌경색 소견이 확인됐다.

이에 A 씨 측은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이 경합해 원고에게 뇌경색으로 인한 뇌변병 장애가 남게 됐다”며 수술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뇌경색이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에게 급성 뇌경색이 관찰됐다는 소견만으로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석주 기자 ssp@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명 유치... 2자녀도 ‘다둥이’ 혜택

정부가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할 방침이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난에 빠진 국내 지역 대학의 위기를 외국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양성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을 발표했다.

먼저, 기존 교육국제화 특구사업을 개편해 광역지자체 단위의 ‘해외인재 특화형 교육국제화 특구’를 신설한다. 해당 특구에 지정된 지자체는 한류 및 IT·반도체 등 해외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맞춤형 유학생을 유치하고 양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학생에 대한 취업 연계 방안을 마련해 기업 수요와의 연계를 강

부산·전남 등 7곳 시범 운영 한류·IT·반도체 등 맞춤형 교육 주택분양 특공 등 2자녀까지

화하고, 인턴십과 현장실습 기회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2025년 전면 시행 예정인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하에서 유학생 확대 전략을 구상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부산·대구·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등 7개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해외인재유치전략담당팀(TF)’을 구성해 운영한다. 이는 대학협의체·기업이 참여하고 지자체가 주도하는 대학 지원체계로,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해 마련된다.

비자 제도도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유리하게 손본다. 법무부와

교육부는 E-9(비전문취업) 비자 혹은 E-10(선원 취업) 비자를 취득한 저숙련·비전문 근로자가 지역전문대학 등에서 야간 및 주말 학업을 통한 학업 취득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유학생들의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제도도 개선한다. 정부는 유학생 비자인 D-2 비자 지침을 개정해, 주중 최대 30시간 근무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기로 했다.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도 2자녀 가구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한다.

손현경 기자 son89@ 정유정 기자 oiljung@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뿐인 여행의 기회!

트래블로그
100만 하나머니 지원 이벤트 [~8/31]



지금 하나머니 앱에서 **트래블로그** 시작하고
100만 하나머니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1 하나머니 앱에서
내 계좌를 연결한다

2 환율(Spread) 100% 우대 받고
외화 하나머니를 충전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QR코드를 참고해주세요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하나금융그룹**

•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생명, 하나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기관이며, 하나카드 및 하나캐피탈은 부보금융기관이 아닙니다. • 하나금융그룹 관계사들은 상호 채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상품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절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은 2023년 8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하나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광고-04541호(2023.06.30) • 하나카드 준법심의 A-23-1126 (2023.06.22~2024.05.31) • 하나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0092호(2023.07.01~2023.12.31) • CC브랜드230630-0409

구원자 혹은 파괴자... 논쟁적 인물, 오픈하이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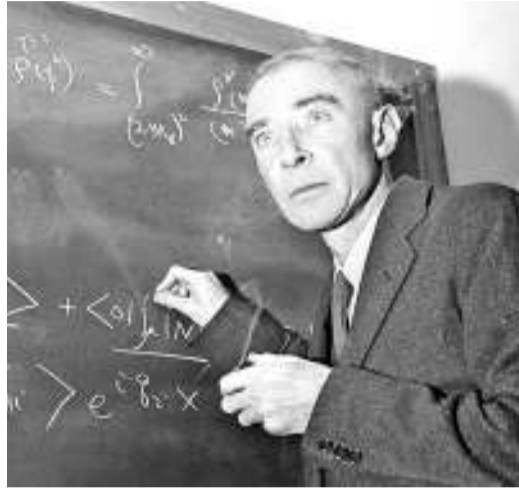
영화 '오픈하이머'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가 독보적 흥행 질주를 시작한 가운데 오픈하이머라는 논쟁적 인물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낸 '구원자'라는 평가와 세상에 혼돈을 안긴 '파괴자'라는 모순된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16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오픈하이머'는 전날 55만2000여 명의 관객을 모아 1위를 차지했다. 매출액 점유율은 44.2%였다.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핵폭탄 개발 계획인 '맨해튼 프로젝트'를 주도한 물리학자 오픈하이머의 삶과 고뇌를 그린다. 오픈하이머는 1904년 4월 미국 뉴욕의 한 부유한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1922년 하버드대에 입학한 그는 졸업 후 당시 물리학의 중심지였던 영국 케임브리지 캐번디시연구소로 거쳐 독일 괴팅겐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오픈하이머가 맨해튼 프로젝트의 연구 책임자로 발탁된 건 38세의 젊은 나이였는데, 미군 상부는 그의 발탁을 반기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가 양자역학 등을 연구한 뛰어난 과학자는 맞지만, 자신을 무시한 대학교수에게

흥행 질주 시작한 영화 '오픈하이머'



로버트 오픈하이머의 생전 모습. 작은 사진은 영화 '오픈하이머'의 한 장면. AP연합뉴스·유니버설픽처스 제공

2차대전 끝낸 원폭의 아버지... 대량살상무기로 세상을 혼돈에 핵무기 반대론자로 돌아서, 매카시즘 광풍에 공산주의자 몰려

복수하겠다며 책상에 독 사과를 두는 등 대학 시절부터 보여준 괴팍한 성격과 가족·지인의 공산당 가입 이력 등 때문이었다. 또 오픈하이머는 노벨상 수상 이력도, 큰 규모의 연구소를 맡은 경험도 없었다.

그러나 맨해튼 프로젝트의 총책임자, 미 육군의 레슬리 그로브스 대령은 그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적극 지지했고, 오픈하이머는 1945년 7월 16일

세계 최초의 원폭 실험, 코드명 '트리니티'에 성공했다. 그해 8월 6·9일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엔 두 개의 원폭이 떨어졌다. 이는 20만 명의 피폭 사망자를 낳으며 일본의 패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일본은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종전 후 맨해튼 프로젝트가 대중에 공개되면서 오픈하이머는 '원폭의 아버지'로 추앙받았고, 1946년에는 공로

훈장을 받았다.

그러나 정작 오픈하이머는 자기손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인 무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좌절했다. 실제 그는 트리니티 실험 이후 "나는 이제 죽음이고, 세상의 파괴자가 됐다"고 자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핵무기 반대론자로 돌아선 그는 군비 경쟁을 우려해 핵무기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이끌고 개발 대신 규제를 권고하는가 하면, 미 정부가 추진하던 수소폭탄 개발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문제는 당시 미국에서는 공산주의자를 색출하려는 매카시즘 광풍이 불고 있었다는 점이다. 정부의 방침에 반기를 든 오픈하이머는 소련에 기밀 정보를 빼돌린 스파이라는 의심까지 받았고, 결국 그는 1954년 원자력위원회에서 물러났다. 오픈하이머의 경력에 중지부를 찍은 사건이었다.

오픈하이머의 소련 스파이 혐의가 완전히 밝혀진 건 최근이다. 미 에너지부는 지난해 12월 성명을 통해 "오픈하이머의 보안 승인에 대한 1954년 원자력위원회의 결정에는 결함이 있었다"며 "그의 충성심과 애국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가 사망한 지 55년이 지난 후였다.

장유진 기자 yxxj@

계시판

배태민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장 취임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은 배태민 원장이 16일 취임했다고 밝혔다. 배 신임 원장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



과학기술원(KAIST)에서 원자핵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부터 2017년까지 미래창조과학부 성과평가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등을 지냈으며 이후 국립중앙과학관장, 육군 미래혁신연구센터장 등으로 일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스테판 언스트 총장 선임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오는 10월 1일자로 스테판 언스트 신임 총장을 선임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는



20여년간 독일 스킨케어 업체 바이어스도르프에 몸담았으며 유럽, 남미, 중국, 대만 등 다양한 지역에서 근무했다. 바이어스도르프 한국 지사 대표, 액센츄어 송의 스타트업인 마케비전 코리아 대표를 거쳐 현재 차벨파트너스 건축사무소 최고운영책임자로 재직 중이다.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홍보 담당관 정신기 ▲공정거래위원회 구지영

◆특허청 ◇과장급 전보 ▲규제개혁법 무담당관 박현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본부장 (상임이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김옥주 ▲자산관리본부장 윤명규

◆동양생명 ◇승진 ▲커뮤니케이션 담당이사대우 이정훈 ▲DCHRO 이사대우 김경명 ▲데이터분석팀장 오덕순 ▲감사팀장 한동진 ▲FC영업팀장 이원석 ▲정보보호팀장 장현각 ▲컴플라이언스팀장 김상범 ▲IR팀장 현승재 ▲전보 ▲연금사업팀장 나유문 ▲대체투자팀장 김의경

부음

▲박태순 씨 별세, 양승우(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 씨 모친상=15일, 대전 중구 충남대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17일 낮 12시, 042-280-8181

▲김숙희(SK윌더스 커뮤니케이션그룹장) 씨 별세, 왕의경 씨 부인상=15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 발인 18일 오전 8시, 02-3410-3151

▲우말순 씨 별세, 김형운(한일파워텍전무)·형근(서울셀렉션 대표) 씨 모친상, 양미순 씨 시모상=16일, 인천의료원 장례식장 102호실, 발인 18일 오전 6시 30분, 032-580-6672

▲김병무(전 공주대 사범대 학장) 씨 별세, 석경숙 씨 남편상, 김윤정(국립생물자원관 전문위원)·윤희 씨 부친상, 유준상(제주항공 운항승무원) 씨 장인상=16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18일 오전 11시 30분, 02-3410-6920

▲박병직(전 정일권·백두진·김종필 국무총리 공보비서) 씨 별세, 박병신(전 뉴시스 전국부 편집위원)·재신(은혜광성교회 담임목사) 씨 부친상, 신인근(클래식 기타리스트)·안계환(전 농협 지역감사) 씨 장인상=16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4호실, 발인 18일 오전 7시, 02-3010-2000

동국제강그룹, 명동밥집에 후원금



동국제강그룹이 16일 서울 명동성당 가톨릭회관 본관에서 '2023 명동밥집 후원식'을 갖고 후원금 2억 원을 전했다.

올해로 3회째 후원이다. 누적 후원금은 7억 원이다. 장세욱(사진 왼쪽) 부회장의 사재 1억 원 기부를 계기로 이어진 인연이다. 2021년 3월 장 부회장은 코로나 19 펜데믹으로 을지로 분사 인근 무료 식사 나눔 활동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느끼고 도울 방법을 수소문해 명동밥집에 사재 1억 원을 전한 바 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사진제공 동국제강

메뉴에 대한 진심... '프라이즈' 감자 캐기 나선 김동선

"건강한 식재료 조달로 지역 상생" 홍콩서 버거 만들기 이어 현장경영

"파이브가이즈는 대한민국 땅에서 직접 재배한 신선한 감자를 쓰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전략본부장이 파이브가이즈 대표 메뉴인 프라이즈(감자튀김)의 식재료 산지를 찾아 감자 수확에 참여하는 등 현장 경영에 나섰다.

16일 한화갤러리아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이날 2일 강원 평창군 산지에서 감자 생산 과정 전반을 점검했다. 김 본부장이 생산현장에서 팔을 걷어붙인 건 4월 홍콩 파이브가이즈 조리 실습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김 본부장은 품질 점검은 물론 지역 농민과 감자 수확에 직접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 3시간 가량 감자 수확에 참



김동선(오른쪽) 한화갤러리아 전략본부장이 강원 평창군 감자 산지에서 생산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화갤러리아

여한 김 본부장은 "직접 경험을 해보니 많은 땀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 "무엇보다 지역 농민들과 상생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한국파이브가이즈는 수입산 냉동감자가 아닌 강원 평창군 등 전국 여러 산지에서 수확한 '신선한 감자'를 공급받아 직접 손질 후 조리하고 있다. 특히 식재료

〈한화갤러리아 전략본부장〉

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주 3회 이상 전국에서 새 감자를 받아 사용하고 있다. 오픈 초기에는 전남 보성 감자를 사용했고 이달부터는 300여 곳의 강원지역 농가에서 감자를 공급받고 있다.

브랜드 유지를 주도한 김 본부장은 파이브가이즈 국내 론칭 전 1년 여 동안 미국 파이브가이즈에서 쓰는 러셋 감자와 동일한 품질과 맛을 가진 국산 감자를 찾는 데 공을 들였다. 국내에서 파이브가이즈의 오리지널 맛을 구현할 수 있는 건 이 같은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 덕분이다.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한 농가도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날 수확 현장에 함께 참여한 농민 김찬희 씨는 "매년 농가에서 고민하고 있는 판로 확대에 대한 문제가 파이브가이즈 덕분에 해소됐다"고 만족했다.

유승호 기자 peter@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 '일회용품 제로' 캠페인 참여

한국부동산원은 손태락(사진) 원장이 일상생활 속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인 '일회용품 없애기 도전(이하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6일 밝혔다.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공공기관, 기업, 단체, 국민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실천 약속을 기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후속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이상길 대구엑스코 사장으로 부터 지명받은 손 원장은 원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려갈 것을 약속했다. 다음 실천 주자로는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과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지목했다.

손 원장은 "앞으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과제를 발굴·추진해 탄소 저감과 환경 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사진제공 한국부동산원

간편복 입은 이석용 농협은행장 '쿨 코리아 챌린지' 동참

이석용(사진 가운데) NH농협은행장이 시원한 간편복 착용으로 냉방 에너지 절약에 동참했다. 쿨 코리아 챌린지는 환경보호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공익 캠페인으로 국민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각계 리더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16일 NH농협은행은 이 행장이 9일 이 승열하나은행장의 추천으로 본사에서 직원들과 함께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다음 릴레이 참여 주자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안호근 원장을 추천했다.

이 행장은 "일상 속 간편복 착용은 에너



지 절약과 함께 업무 효율성도 향상시킬 수 있어 국민 누구나 손쉽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향후에도 일상생활 속 ESG를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과제를 발굴해 ESG경영 선도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사진제공 NH농협은행

마감 후



김동효
중소중견부차장

한꺼번에 추진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무더기 개편 방안이었다. 정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16년 된 노란우산공제를 대수술하겠다고 하며 최근 개편안을 내놨다.

노란우산공제는 공제뿐 아니라 대출과 보험 등 소상공인의 종합금융기능을 수행한다. 소상공인 생활 안정의 마지막 보루로도 불린다. 지난 16년간(2007~2023년 6월 기준) 공제금으로 푼 금액은 6조 원이다. 이 중 지난해 말까지 폐업공제금으로 지급한 규모가 4조7000억 원이다.

노란우산공제는 규모면에선 교직원공제(56조9000억 원)에 밀리지만 성장속도에선 압도적 1위라는 게 정부설명이다. 2007년 출범 당시 4000명 수준이었던 공제 규모는 현재 171만 명

건. 지난해 전체(4만4295건)의 절반을 넘는 수치다. 노후자금,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뜻이다.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유입의 유인책이 없다는 건 해묵은 비판이다. 이를 의식한 듯 최근 개편안엔 복지, 보험, 대출, 공제 항목 확대 등 각종 대책이 대거 담겼다. 당장 공제항목 확대와 중간정산제가 내년부터 시행되고, 부금내 무이자 긴급대출을 올해 하반기부터 확대한다. 재가입 장려금, 지자체 장려금, 복지서비스 통합공고 등이 올해 하반기부터 해야 할 과제다. 내년부터 장기가입 혜택 제공, 부가상품 도입 검토, 정책보험 배우 지원, 재가지원 패스트트랙 등에 나서야 한다.

그간 양적 성장에 몰입했으니 이제 질적 성장을 다룰 때가 된 측면은 이해

‘노란우산’ 대책, 이젠 속도전

에 달한다. 이 기간 부금 잔액은 30억 원에서 23조 원을 넘어설 만큼 비대해졌다.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에 고개를 갸웃거린 것은 코로나 시점을 지나면서다. 2007~2022년까지 폐업공제금으로 풀린 4조7000억 원 중 코로나 기간에 무려 절반이 쏟아지며 사회안정망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하지만 노란우산공제엔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납입할 만큼 매력적인 혜택이 없다 보니 가입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잊어 버린 돈이라 생각하고 내면 퇴직금이 된다’며 성실히 돈을 납입하는 누군가가 있는 반면 일부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빼면 혜택이 없다는 푸념을 내놓는다.

노란우산공제를 폭풍이 몰아칠 때 우산처럼 써보겠다는 심리적 전망으로 삼기엔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실제 공제납입금을 내기 어려워 계약을 해지한 건수는 올 들어 5월까지 2만7265

할 만하다. 하지만 혜택이 적다는 지적에 뒷집을 지고 있다가 탈출 러시에 발등에 불 떨어진 듯 육여닐기식 대책을 마련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중기중앙회 내부에서도 법안과 시행령 개정, 전산 개발 등이 수반돼야 하는 상황에서 바로 추진이 가능할지 의문스럽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 많은 대책을 떠받칠 자산운용과 수익률도 문제다.

대책만 산더미처럼 토해냈다는 비난을 피하려면 결국 속도전으로 가야 한다. 손질 의지가 공염불에 그치거나 미적지근해졌다는 가입자수를 2027년까지 25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아득해진다. 가입 확대와 이탈 방지, 높은 수익률의 삼박자가 균형있게 굴러가야 공제가 진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할 수 있다. 당장 ‘노란우산공제가 좋냐’는 기초적인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부족한 홍보부터 채워길 바란다.

sorahosi@

이투데이, 말투데이

☆ 루드비히 미스반 데어 로에 명언 “신은 디테일에 있다.”

독일 출신 20세기 대표 건축가. 고전주의 미학과 근대 산업이 제공하는 철, 유리 등 소재를 교묘하게 통합한 그의 대표작은 바르셀로나 국제박람회의 독일관, 시카고의 레이크쇼어 드라이브의 아파트 등이 있다. 성공 비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내놓던 그의 대답이다.

거대한 규모의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도 사소한 부분까지 최고의 품격을 지니지 않으면 결코 명작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는 오늘 세상을 떠났다. 1886~1969.

☆ 고사성어 / 병무상세(兵無常勢)

전진(戰陣)은 적의 형세에 따라 변화하므로 일정한 형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 출전 손자(孫子) 허실편(虛實篇). “무릇 군의 형태는 물과 같아야 한다. 물의 운행은 높은 곳을 피하고 아래로 흐르기 마련이다. 군의 형태도 적의 충실한 점을 피하

고 허점을 공격해야 한다. 물은 지형에 따라 흐름의 형태가 정해진다. 군도 상황에 따라 승리의 방법을 통째로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군의 형태는 언제나 유동하고[故兵無常勢], 물도 언제나 고정하는 법이 없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변화하며 승리를 획득하는 것, 이것을 신기라 한다.”

☆ 시사상식 / 팬덤경제(Fandom Economy)

집단행동을 하는 ‘팬덤’과 경제적인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의 합성어다. 팬덤이 불러일으키는 경제적 효과를 뜻한다.

현대경제연구원 “아이돌 문화라고만 여겼던 팬덤 현상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해 널리 쓰인다. 가장 잘 활용하는 곳 중 하나가 패션 업계다. 팬층이 탄탄한 이들과의 파트너십으로 홍보효과를 누리고, 매출·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 다양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숲 연구소장



박승완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美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한미일, 북핵 대응·對中 압박 공조 논의 협력속 실리찾기... 新밀월시대 분수령

한미일 3국 정상들이 글로벌 다자무대 아닌 별도 3국 정상회담을 위해 중요한 국제외교의 무대였던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모인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이곳에 외국 정상들을 초청하는 것이 처음인 만큼 그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3국 안보협의체 핵심은 한일 관계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와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협의체인 오커스(AUKUS)보다 한미일 안보 협의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 회담의 핵심 아젠다는 무엇일까? 백악관 국가안보보장회의(NSC) 존 커비 전략소통관은 “18일 3국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내용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경제안보·글로벌 공급망 등 폭넓고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겠지만, 실제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협력방안 논의이다. 북한의 군사력 증강이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에 3국이 공감하고 있고, 미국은 이를 통해 한미일 안보 협의체를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한다. 미국은 한미와 미일 간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지만, 약한 한일 간 안보협력의 고리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와 안보협력의 방향을 이번 회담에서 구체화하고자 할 것이다.

둘째, 직접 중국을 언급하지 않겠지만 결국 중국을 겨냥한 3국 간 공조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가안보차원에서 중국을 가장 위협한 지정학·지경학적 국가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 경제안보 등 영역에서 한미일 3국 간 안보협의체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한미일 안보협의체의 핵심은 결국 한일 관계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이 한일정상을 캠프 데이비드에 초대할 목적 중 하나는 굳건한 한미일 협의체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효과가 있고, 대내적으로는 개선되고 있는 한일 관계를 더욱 단단히 묶겠다는 속셈이다.

지난 8일 뉴멕시코 주에서 열린 2024년 대선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관계개선을 자신의 외교적 성과로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내가 한일 정상을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했고, 한국과 일본 두나라는 이미 화해했다”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군사 경제 첨단기술 등 전방위적으로 커져가는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 안보협력 강화와 한미일 경제안보 공조가 핵심인 것이다. 결국 한일 양국이 미국 편에서 중국 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구조인데 당연히 한일 양국 입장에서 정치적·경제적으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8일 미국 뉴멕시코주 벨렌에서 미국 자본의 대중국 투자 금지 행정명령을 설명하는 도중 활짝 웃고 있다. AP뉴시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반도체 및 마이크로อิเล็กทรอนิกส์, 양자정보기술, 인공지능 시스템 등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미국의 직접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도 한일 양국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록 규제 대상이 미국인과 미국 기업으로 제한되고 있지만, 주변 동맹국의 동참을 간접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對中 견제에 동맹국 동참 압력 커져

미국 의회뿐만 아니라 백악관 내부에서도 대중 투자규제 행정명령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맹국과 파트너십 국가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 지난 3일 공화당 소속 마이크 갤러거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중국 첨단기술기업 투자제한 관련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서한

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다.

중국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미국 투자규제는 이미 지난 5월 일본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도 논의되었고, 영국 등 일부 유럽국가들의 관련 유사 조치 시행가능성도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스트리트저널·니혼게이자신문 등 해외매체에서도 미국이 유럽과 한국, 일본 등 동맹국가에 중국 첨단기술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유사한 조치를 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정상회담 결과 따라 한중 관계 요동칠 가능성

한편, 미국의 첨단기술 투자규제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어떨까? 상무부 등 주관부서가 반발을 하고 있지만, 이미 예상했던 수준으로 그다지 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모양새다. 단지 향후 유럽, 한국, 일본 등 국가의 동참 여부에 주목하면서 핵심광물자원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통제 이후 추가 제재 보복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을 것이다.

사실 중국의 관심사는 18일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담의 결과다. 중국은 한미일 군사훈련 정례화, 경제안보, 사이버 정보협력 등 새로운 한미일 안보협의체 신설로 인해 다가올 실질적인 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한중 관계는 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북한 대응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미국은 한미일 3국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우리경제의 핵심 파트너인 중국과 반목하지 않으면서 북한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실리적·균형자적 외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재선을 위해서는 차이나 굴기를 막는 동시에 자국 경제를 위해 중국과의 협력도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

11월 샌프란시스코 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변화된 협력의 장이 마련될 수도 있다. 백악관과 미국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지속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미국의 중국 견제에 동참할 경우 한중 관계는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협력의 목적은 같지만 서로 다른 의지와 방향성을 가진 한미일 3국의 신(新) 밀월 여행은 향후 한일 및 한중 관계변화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중국경영연구소 소장

재난 대비 '국민안전처' 부활을

최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태 등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와 책임자 처벌, 복구 대책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기후변화로 수시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다. 재해가 날 때마다 소관부처나 예산 타령, 정치적 공방에 치중하고,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는 것을 보는 국민은 답답하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주변의 수해피해를 항구적으로 방지하고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16개의 보를 구축했다. 110개소의 저수지는 독을 높여 물그릇을 크게 했다. 강 주변의 상습적 침수나 홍수피해를 방지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지류와 지천을 추가로 정비해 집중호우 등 재해에 대비해야 했으나 하지 못했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는 가히 재난 상황이다. 재난으로 망연자실해 있는데 일부 정치인의 부적절한 대응과 구설은 더욱 가슴 아프게 한다. 재난을 두고 갑론을박하기보다 몇 가지 대응 원칙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

첫째, 재난의 정치적 이용을 금해야 한다. 특히 불가항력적 자연재해를 정치적 공격 발미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재난의 정치화'를 중단해야 한다.

둘째, 정부와 공무원이 모든 재난을 다 책임지겠다는 것은 안 된다'는 재난 전문가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재난현장에 보여주듯 정치인 방문을 자제해야 하며, 재난의 정치적 이용에 엄중 경고를 해야 한다. 재난 대비에 여야가 따로 없다.

셋째, 재난 대응 기본 수칙을 지키자. 기본 원칙은 '선조치 후보고'이다. 재난이나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상급부서 보고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한다. 막상 현장의 시급한 조치는 뒤로 밀린다. 휴전선에서 각종 사고가 나면 모든 관심은 '대통령에게 언제 보고했나'에 초점을 맞춘다. 잘못된 대응이다. 보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의 긴급조치인데 잘 지켜지지 않는다. 현장에서 가용한 자원으로 선조치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키자.

넷째, 실용적 재난 대응 장비를 갖추자. 화재나 재해에 대비한 매뉴얼은 다 갖춰져 있다. 그

논현로

김재수

동국대 석좌교수
前 농식품부장관



러나 막상 상황이 발생하면 매뉴얼대로 움직이기 어렵다. 세계적인 등산가에게 들은 이야기다. 자신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밭줄을 가지고 다닌다고 한다. 돌돌 말면 주먹만 한 크기의 밭줄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목숨은 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용적인 재난 장비다.

넷째, 대형 재난은 총괄하는 부처가 필요하다.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와 자연

재해로부터 미국을 지키기 위해 '국토안보부'를 설치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재난에 대비해 '국민안전처'를 설치했으나 3년 만에 폐지됐다. 기후

변화와 기상 이변으로 대형 재난은 수시로 올 수 있다. 재난급 침수피해가 발생했으나 부처 간 소관 다툼과 비협조로 여러 부처 공직자가 처벌받는 오송 지하도 침수 사태를 명심해야 한다. 다소 비효율적 측면이 있더라도 대형 재난을 총괄하는 기관이 주도가 되어 대응을 해야 한다.

다섯째, 우리나라는 전국이 '재난 지뢰밭'이다. 홍수, 화재, 교통사고, 건축물 붕괴, 해상사고 등 원인과 형태도 다양하다. 작은 재해 위험시설을 조심해야 한다. 전국에 1만7080개의 저수지가 있다. 이 중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대형 저수지가 3428개다. 대부분(87%)이 건설된 지 50년 이상으로 언제 붕괴될지 모른다. 준설이 제대로 되지 않고 방치돼 집중 호우에 매우 취약하다. 대형 재난은 작은 위험 시설부터 대비해야 한다. 재난 대비는 원칙을 지키고 매뉴얼과 탁상이 아닌 현장 실용적 방안으로 대처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컨트롤타워로 기능 美도 9·11이후 국토안보부 설치 정치공방 말고 전문가 앞세워야

코인, 사후약방문이라도 잘하길

"자고로 돈, 총, 마약은 미국이랑 조금이라도 엮이면 안 되거든요."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에서 마약상으로 등장한 조봉남(황정민 분)의 명대사 중 하나다. 미국 사법당국이 자금 세탁, 마약 사범을 매우 엄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최대한 엮어서는 안 된다는 그의 사업 지론(?)이다. 최근에는 여기에 코인이 추가되는 양상이다. 글로벌 가상자산 기업들이 미국 정부와 최대한 엮이지 않으려는 모양새다.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이어나가기에 규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바이낸스 US는 지난달 달러 입금을 중단했고, 코인베이스는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거래소 '코인베이스 인터내셔널 익스체인지(CIE)'를 버뮤다에 출시했다. 제미니는 미국 외 지역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파생상품 거래소를 출시했다. 주요 글로벌 가상자산 프로젝트들도 미국을 떠나 아태 및 중동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업체는 앞다퉈 아시아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웹3를 적극 지원하는 일본과 개인 투자자들의 열기가 뜨거워 한국으로 몰린다. 한편, 합법과 불법의 영역을 넘나드는 업자들은 한국 금융·사법 당국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모습이다. 금융정보분석

기자수첩

안유리
미래 IT부



원(FIU)의 경고에도, 오히려 미민가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당국을 비웃듯 버젓이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처벌은 커녕 수사조차 흐지부지 끝났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만약 FIU가 텔리오의 방만 경영을 사전에 제대로 들여다봤다면, 작금의 입출금 중단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무조건적인 금지와 규제 불확실성은 지양해야 한다. 하지만 법통과 제도에 코웃음을 치는 국가는 다르다. 그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금 우리는 사후약방문에 집중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6월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통과시켰다. 검찰, 금감원 등 7개 수사·금융당국 인력으로 구성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텔리오·하루인베스트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한국이랑 엮이면 큰일 난다는 교훈을 새겨줄 때다.

inglass@

사설

'형사처벌 3%' 강력범죄, 10대 가해자가 웃는다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만 14~18세 소년범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일쑤라고 한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공개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8084건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은 567건에 불과했다. 3.1%다. 나머지 1만7517건(96.9%)은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에 그쳤다. 형사사범의 명암을 드러내는 씁쓸한 통계다.

5대 강력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 가리킨다. 성인의 범행으로 입증된다면 솜방망이 판결을 내놓기가 거북할 것이다. 하지만 10대 소행이라면 재판부의 눈빛부터 달라진다. 어제 통계가 단적으로 보여준다. 강도(17.9%), 강간(6.5%), 강제추행(1.4%), 특수폭행(2.3%)의 형사처벌 비율은 매우 저조했다. 만 14~15세의 강간·강제추행 사건 380건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살인(54.8%)만 50% 넘게 형사처벌 됐을 뿐이다.

요즘 10대는 신체 발달 측면에서 성인에 못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교육부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15세에 해당하는 중3 남학생의 평균 키는 170.5cm로 성인 남성 평균치(172.5cm)에 육박한다. 적어도 완력에선 성인 평균을 웃도는 청소년이 많은 것이다. 이에 반해 이 연령대의 범죄 인식은 날로 무뎠어지는 분위기다. 최근 사회관계망(SNS)에 '살인예고 글'을 올려 사회 혼란과 공포를 부추긴 이들의 상당수도 청소년 연령대다.

현실이 이런데도 국내에서만 아니라 대다수 선진국 법원이 소년 범죄를 온정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정서가 깔려 있다. 하지만 타인의 삶을 송두리째 부수는 강력범죄에까지 온정주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능사일 수는 없다. 소년범죄가 성인범죄에 못지않게 잔혹한 현실도 직시할 일이다.

3.1% 형사처벌 통계는 왜 10대 강력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지 설명해 주는 자료일 수 있다. 솜방망이만 앞세우는 관습을 원점 검토해야 한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소년분류심사원 증설, 보호관찰 인력 증원 등 소년사법 체계의 여러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법부는 엄정한 판결로 임할 일이다.

만 14세 이상과 달리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촉법소년의 연령하향 조정도 검토할 때가 됐다. 촉법소년은 만 10~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다. '살인예고 글'을 올린 10대 중에도 촉법소년이 상당수에 달하지만, 법망은 무력하기만 하다. 법무부는 지난해 나이를 낮추는 취지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2세 혹은 13세로 하향하는 의원 입법안도 쌓여 있다. 피해자 고통을 살피는 대신 가해자 인권만 중시하는 법 구조의 모순 때문에 반발이 가시화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보호처분이 흉악범의 형사처벌 회피 경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했다. 차제에 촉법소년 연령하향까지 포함한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형사처벌 3.1% 통계 밑에서 피해자는 울고, 10대 가해자는 웃는 꼴을 계속 방지할 수는 없다.

특어, 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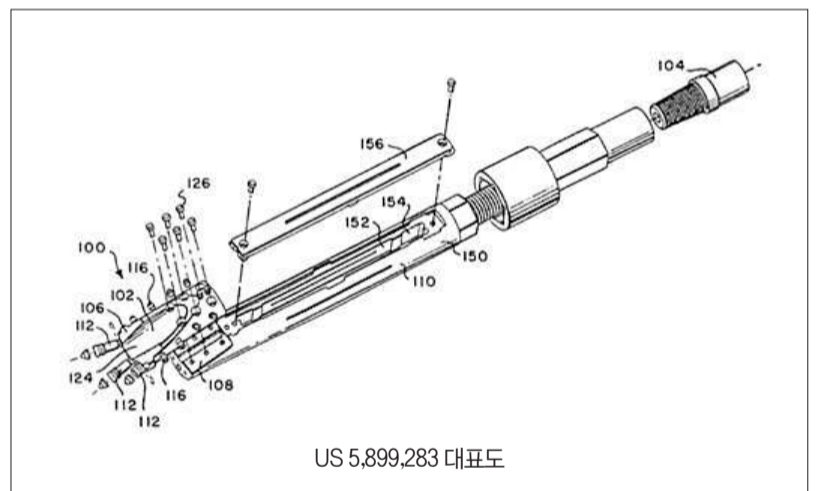
임시출원 너무 믿으면 안돼②

임시출원을 했다고 특허성 판단 기준이 무조건 임시출원 시로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그 이유를 좀 더 살펴보자.

미국 특허법 35 U.S.C. § 119(e)(1)은 임시출원이 우선권의 기초가 되기 위한 요건, 즉 i) 우선권 주장이 존재할 것, ii) 임시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될 것, iii) 임시출원의 발명자와 적어도 한 명의 발명자가 동일할 것 및 iv) 임시출원에 기술된 발명에 대한 청구항을 적어도 하나 포함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때, 요건 iv)와 관련하여, 임시출원에 기술된 발명인지 여부에 대해, 미국 법원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임시출원의 명세서에 35 U.S.C. § 112 1의 '발명의 서술과 그 제조 및 사용 방법을 충분히 명료하고 간결하며 정확한 용어로' 제 공해야 하며, 통상의 기술자가 정규출원에서 주장된 발명을 실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New Railhead Mfg., L.L.C. v. Vermeer Mfg. Co., 298 F.3d 1290, 1294 (Fed. Cir. 2002)).

즉, 정규출원의 클레임 발명이 임시출원에 의해 충분히 기술되어야 할 것인데,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대상특허(US 5,899,283)의 청구항 1에 측정기구



US 5,899,283 대표도

의 드릴비트(102)가 측정기구의 하우징(110)에 대해 기술어겨 구비되는 구성이 예비출원에 명시적으로 설명되지 않아 35 U.S.C. § 119(e)(1)의 우선권을 향유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해당 사건에서 임시출원은 측정 장치의 하우징과 드릴 비트의 2개의 별도의 도면을 제시하였고 드릴 비트가 하우징에 부착된 상태(기술어진 정도)를 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판결은 애플과 인텔의 분쟁에서도 인용되는 등 미국 특허분쟁에서 우선일 인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 법원은 특허무효 분쟁에서 우선일이 임시출원일로 소급될 수 있다고 추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는데, 심사단계에서 우선권의 인정에 대해 실질적인 판단을 받은 바 없는 것이 그 근거 중 하나로 판단되었다. 김세윤 아이피리본 대표·변리사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덕현	주필 이승현	편집국장 박성호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주소 우편번호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만5000원 1부 8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AMSUNG

Galaxy Z Flip5



자세한 제품 정보는
삼성닷컴에서 확인하세요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세계박람회유치를 응원합니다

samsung.com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플렉스 모드가 동작하는 각도는 75°-115°이며, 해당 범위를 벗어날 경우 완전히 펼쳐지거나 접힐 수 있습니다